

양 희 은 · 송 승 환 의

여성시대

2005 11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10~11:00



Contents

2005 November 11

- 04 서른 살의 여성시대
- 06 여성시대가 찾은 이 사람 인천의 하태수 씨
- 12 그림이 있는 편지 수건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 16 이 달의 편지 "내가 좋아!" 외
- 52 이 사람이 사는 모습 노동장애인아카데미 이알찬 씨
- 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기업은행 미아동지점 고객 - ㈜세화피앤씨 이훈구 대표
- 65 남자는 왜? 남자와 중년
- 76 권리를 찾는 여성들 KTX 여승무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 82 장터일기 비릿하지만 정겨운 생선냄새 - 갈산장
- 86 행복한 책 읽기 작은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유
- 88 사연이 있는 사진
- 9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꿈을 향하여
- 92 안미경의 싸우며 사랑하며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 96 김PD의 차 한잔의 수다 새로움을 위한 '버리기'와 '비워두기'



- 양희은 · 송승환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송승환 프로듀서_김현수, 김빛나 방송_MBC라디오 매일 아침 9:10~11:00 MBC 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368-1500~3, 문의 789-3443, 3445
- 여성시대/월간지/비매품/2005년 11월호 발행_2005년 11월 10일 발행인_(주)문화방송 대표이사_최문순 등록번호_라-5413 편집·제작_B&M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관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서른 살의 여성시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벤션 홀"

서른 살의 여성시대에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가족들께

여성살롱과 여성시대가 방송된 지 서른 해가 지났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지난 30년의 추억과 인연을 모아
〈서른 살의 여성시대〉를 마련합니다.

매일 라디오를 곁에 두고

여성시대가 친구인 듯 여겨주신 분들과
삶의 지혜를 담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MBC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공개방송과 여러 가지 이벤트,
여성시대 생방송, 뜻있는 전시회가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모시는 자리이니
가족과 친구와 오셔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여성시대 진행자 양희은 · 송승환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최문순 올림



여성시대표 평등가족

— 인천의 하태수 씨댁



「 이 」 번 가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평등가족 페스티벌을 열었다. '여연'에서 평등가족을 추천해 달라기에 여성시대는 회「 」의를 거쳐 하태수 씨 가족을 추천했다. 하태수 씨는 그 자리에 참석한 후 편지를 보내왔다.

'그 자리는 평등한 가족, 다양한 가족, 나누는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과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무슨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거나 유별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참석한 것이 영광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평등가족과 여성의 권익이라는 말을 듣고, 지난날과 주변을 둘러보니 딱히 실천이고 운동이고가 아닌 생활 자체였음을 느낍니다. 청상으로 어린 우리 3남매를 무난하게 키워주신 어머니를 친구처럼, 연인처럼 존경하면서 살아온 바탕과 두 누나, 두 처제, 두 딸과 살아야 했던 우리 부부의 운명이며 삶이 곧 평등으로 연결되었나 봅니다.'



월간 《여성시대》는 평등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평등을 실천하는 하태수 씨 가족을 만났다.

하태수 씨는 구례에서 경찰공무원이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누나 둘과 어머니와 살았다. 형편은 매우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낙천적이셨다. 하태수 씨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불을 꺼놓고 새벽 세 시까지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아들이다. 아버지를 닮아 꼼꼼하고 공부 잘 하던 그에게 이런 일도 있었다.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쓰던 날, 선생님은 반에서 네 명을 불러, 집에 먼저 가라고 하셨다. 네 명은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안에 하태수 씨가 있었다. 교실을 나와 하태수 씨는 땅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텅 빈 운동장에 땅거미가 내리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홀로 된 자신을 보며 울었다. '고등학교도 못 가는데 우등생이라고 달아주던 이 배지는 무슨 소용이냐'고 배지를 뜯어 땅바

닥에 패대기쳤다.

한햇동안 기술을 배우러 다녔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더는 못 보겠다 니 학교에 가라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했다. 애태워 들어온 학교라 그런지 부족해도 모 든 게 감사하고 재미있었다. 학도호국단 간부이던 그는 교련복도 없어서 윗옷은 교련복, 바지는 동네 아저씨가 입던 예비군복을 입었건만 구령을 부르는 소리는 하나도 위축되지 않았다.

건설회사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식당 아주머니와 친했다. 고향의 어머니와 마음결이 비슷한 분이라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랐는데, 당 신의 딸딸을 소개하셨다. 화려한 용모에 새침하던 아가씨를 열심히 따라 다녀 결혼했는데, 어머니와 장모님이 그 해에 세상을 떠나셨다. 하태수 씨 부부는 신혼이었지만 중학교 3학년이던 처남과 처제를 데려다 같이 살았 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라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는 둘 다 결혼하여 독립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하태수 씨는 아내에게 장난으로라도 발길질 한 번 해 본 적이 없고, 아내 역시 눈 똑바로 뜨고 큰소리로 남편에게 대든 적이 없 다. 본가가 처가이고 처가가 본가라 생각하기에 집안 애정사에 내 놓는 봉 투에는 부부의 이름을 나란히 적는다. 두 사람은 술 한 잔을 나누어도 두 손으로 따르고 받는다. 아파트도 부부 공동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하태수 씨는 어머니, 두 누나, 처남과 처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꾸어온 지난 세월 이 고맙기만 하다.



하태수 씨는 두 딸과 막내아들, 한결같이 미더운 아내와 함께 살면서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모두와 같이 가꾸어온 지난 세월이 하태수 씨는 고맙기 만 하단다.

하태수 씨네 딸딸인 나리

가 초경을 하던 날을 《여성 시대》 가족들은 다 알고 있다. 딸이 엄마와 소곤소곤 여자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며 아빠는 그 사이에 같이 앉고 싶었다. 그래서 딸 나리에 맞춰 장미 열두 송이를 고르고 한글 이름인 나리에 맞추어 백합 한 송이도 더하고, 은은한 학생용 향수를 골랐다. 밝게 자란 딸이 고맙고 대견해서 이제 숙녀가 되었으니 몸가짐도 조심스럽게 하라는 당부와 축하의 편지도 전했다.

한편 아내 생일 날, 하태수 씨는 아이들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냈다.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무관심’이고 무관심은 마음보다 더한 죄악이다. 셋의 표현을 다장 모이라. -아빠’

누님 두 분은 남동생이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 씀하셨다.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동생부부예요. 우리한테도 잘 하고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 했어요.”

“제가 좋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 났으니 행운이죠. 그리고 누나들이 워낙 마음이 좋아요. 처가 식구들과 살아도 더 잘 해주라고만 하시 지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 보세요. 누님들과 매형들과 자주 모이니까, 고스톱할 때 쓸 동전도 따로 모아두어요. 주말이면 주말농장에서 채소를 키우는데, 누나들도 와서 같이 키워요.”

두 딸과 막내아들, 한결같이 미더운 아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동생을 자랑스러워하는 두 누님과 매형들, 조카들 그리고 처남과 처제,

용돈을 몽땅 저금한 아이들에게

용돈까지 가불해 주며 엄마에게 마음을 표현하게 했다.

이 댁 세 아이는 똑같이 가진 것이 있다. 부모의 사랑도 물론 그렇지만 술과 통장도 있다. 세 아이를 낳던 날, 아버지는 술을 담갔다. 잘 두었다가 세 아이가 결혼할 때, 세 병으로 나누어 부모가 하나 갖고 신혼여행에 한 병 보내고, 새 부부가 간직할 것으로 또 한 병, 이렇게 예정해 두었다. 세 아이 모두 출생 신고하러 가던 날에는 1,000원을 넣어서 '출생기념통장'을 만들었다.

용돈과 세뱃돈을 저금하게 하여 계속 통장을 키우게 하고 부모가 빌려 쓸 때는 이자를 계산해 주었다. 금액이 1,000만 원을 돌파하던 날에는 셋을 일부러 데리고 가서 만 원권으로 찾아왔다. 방바닥에 펼쳐놓고 각자 자기 것을 세어 보게 하고, 티끌모아 태산의 의미를 느끼게 하였다.

그는 친구 부모님을

잊지 못한다. 친구 어머니는 먹을거리를 푸짐하게 내주시고 아버님은 반겨주셨다. 친구방에 들어가 있으면 방문을 함부로 열지 않았고, 시끄럽게 굴거나, 몰래 막걸리를 마시거나,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녀석이 있어 창문으로 연기가 새 나와도 방문을 확 열지 않으셨다. 하실 말씀도 따로 불러내 하시고, 나무라실 때도 잘 모르는 애들이 돌아간 후 낮익은 친구들만 불러 호통치셨다.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다.

2년 전 남편이 산재를 당하고 함께 병원생활을 할 때나,

일에서도 힘겨운 고개를 넘을 때, 아내는 편지를 썼다.

‘울트라 캡슐 방패인 당신께
사랑이’

당신이라는 방패가 크고 튼튼해서 우리 넷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가끔 당신, 그 방패가 너무

하태수 씨는 세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들이 결혼할 때를 대비해 술과 출생기념 통장을 만들어 줬다.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기, 애들 편애하지 않기 등 평등가족인 하태수 씨네는 소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까 걱정해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넋도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고

한 귀퉁이씩 탄탄히 잡고 있거든요. 세상 그 어떤 날카로운 창이나

초강력 미사일이 날아와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힘내.’

남편도 답을 보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세 아이들의 아버지로 강한 생활력으로 열심히 살면서, 식구의 바람막이와 방패가 되고 있다는 자부심에 행복했습니다. 내 몸 관리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내 가정을 위해 힘껏 일하며 보살피고, 회사와 거래처에게 인정받는 것 모두가 내 가족의 전통적인 지지와 버팀목 덕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가족의 응원 앞에서 나아하게 물려줄 남자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내 힘의 영원한 원천입니다.

열심히 할게, 걱정 마. 그리고 당신이 내 아내라는 사실이 정말 고마워.’

하태수 씨가 평소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

거짓말 하지 않기, 약속 지키기,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기,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 해 끝까지 책임지기, 미래를 위해서 늘 공부하며 준비하기, 큰 애부터 중간 막내까지 편애하지 않기, 꾸준히 운동하기...

여성시대표 평등가족인 하태수 씨네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애쓰며 이렇게 산다. ●

글 | 박금선(여성시대 작가), 사진 | 한향란

수건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 박현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결혼을 하면서 친정에서 꽤 많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결혼 초에는 수건에 쓰인 글자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수건에 새겨진 글자들의 의미가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옵니다.

욕실에 들어가면 수건이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1993년 9월, 건강한 몸으로 학교 체육대회를
마치고 기념수건 한 장을 받아오셔서
자랑스레 내놓던 아버지.
그 해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당당하게
걸어보지 못했다고.



수진이 또 말을 걸어옵니다.

2003년, 노인대학을 다니셨던 할머니.

회갑잔치에 가서는 가방에 담아온 떡과 전을 풀어헤치던

할머니. 어느 순간,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노환으로 이듬해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들 곁을 떠났다고.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욕실을 나왔습니다.

아프기 전 씩씩하게 걷던 아버지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먹을 것을 꺼내며,

“현주야, 이거 맛있어. 먹어” 하시던 할머니의 음성도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단풍처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러스트 | 이승원

L.e.t.t.e.r

이 달의 편지

- Letter 01 “내가 좋아!”
- Letter 02 연탄 천 장의 행복
- Letter 03 눈꺼풀이 가벼워지는 이유
- Letter 04 5분 통달조
- Letter 05 소가 된 영감
- Letter 06 정 많은 5층 언니
- Letter 07 나는 버릇없는 큰딸
- Letter 08 만이의 집, 홀로 잤던 언니
- Letter 09 첫사랑을 찾은 여행
- Letter 10 스물아홉 사내의 서른 바라보기
- Letter 11 “나 좀 제발 살게 해 줘!”

일러스트 | 이수민

“내가 좋아!”

01

이 달의 편지

「 세 살이 된 아이가 하루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사탕, 사탕”을 연발했다. 아내는 아 」 이가 밥도 안 먹고 이도 썩는다며 사탕은 질색이었다. 이런 아내를 알기에 아들 녀석이 아빠를 보며 사탕을 달라는 게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니었다.

아내는 작은방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고, 때마침 냉장고를 문을 열던 나의 다리를 부여잡고 아들은 정말 순진한 표정으로 “사탕, 사탕, 사탕”을 나만 들을 정도로 조용하게 외쳐댔다.

그날따라 아이는 정말 영악하게도 엄마가 없는 틈을 타 조용하게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모든 걸 알면서도 나는 녀석의 눈이 얼마나 착하게 보이던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슬쩍 냉동고 문을 열고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네줬다. 빙그레 웃으며 흡족하게 돌아서는 녀석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던지. 속으로 나는 ‘이런 게 자식 키우는 맛이지’ 하며 흐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돌아서는 녀석의 귀에다 살짝 대고 물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나는 정말 사탕의 힘만이 아니라 녀석에게 평소 정말 잘해 주고 있다는 나를 믿었기에 당연한 대답을 기



김경립

충남 당진군 당진읍



다렸다. 그러나 녀석은 정말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고 “내가 좋아” 하는 것이었다.

“뭐?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내가 좋아?” 나는 아이의 재치에 감탄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순간 혼란에 빠졌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속상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녀석 나를 바라보며 잠시 전처럼 순진한 표정을 지

으며 다시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아빠!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이게 또 무슨 복수혈전의 서곡이란 말인가. 나는 정말 착한 표정으로 시원하게 크고 씩씩하게, 그리고 후련하게 대답했다.

“아빠도 내가 좋아.”

그날 이후 난 절대 아이의 순진함에 속지 않을 것을 냉장고 문을 잡고 맹세했다. ●

연탄 천 장의 행복

02

이 달의 편지

「 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한 게 정말 부
쳐 자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
」 냐고요. 올 겨울 우리 집 난방을 책임질
연탄을 천 장 정도 들여 놓았기 때문이죠. 왜 어른신들
말씀이 한겨울을 날 땀감 가득하고, 공간에 양식이 가
득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연탄 천 장을 들여 놓으면 넉넉잡고 석 달은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반양옥인데 아침·저녁
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보일러를 한 번씩 잠깐 돌
려주지 않으면 한기를 느낄 만큼 제가 추위를 유독 많
이 타서 겨울 채비를 위해 오늘 아침에 연탄 천 장을
들여 놓았습니다. 높게 일렬로 가지런히 줄을 서 있는
연탄을 쳐다보니 그저 부자가 된 것처럼 마음부터 따
뜻해 옵니다.

작년 겨울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해서 올 봄까지 잘
돌리고 한여름 그대로 방치해둔 보일러 물을 순환시켜
주는 순환모터며 연탄가스를 배출해주는 연통이 잘 세
워져 있는지, 어디 빠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
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구석구석 시뻘겋게 녹슨 곳
은 솔로 털어내고 밑바닥에 있는 연탄재도 모두 퍼내



정미희

경북 상주시 남성동

어 보일러 대청소를 끝내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탄을 피웠습니다. 연탄 넣는 곳이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연탄을 피웠죠.

작년 겨울,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식구들이 다 모이는 저녁에 한 시간만 돌려 훈기가 돈다 싶으면 보일러를 돌리지 않았는데, 집이 옛날 집이라 조금은 허술하다보니 기름이 쭉쭉 줄어드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타서 집안에 있어도 옷을 겹겹이 입고 움츠리고 지내다보니 항상 몸이 빠근한 게 사람이 활기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서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하루에 들어가는 연탄 값 하고, 보일러 설치비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 연탄보일러 놓는 게 경제적이고 돈도 덜 들겠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 하는데 연탄 가는 것은 내는 모른다. 니가 알아서 하그레이. 알겠나? 한두 번은 해 주겠지만 내보고 전적으로 연탄

을 갈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제?”

이렇게 다짐을 받고서야 연탄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밤낮으로 시간 맞추어 내가 갈고 연탄재는 남편이 저녁마다 버리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연탄을 가는데 세 군데, 석 장씩 들어가니 연탄재는 열두 장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은 괜찮은데 한겨울 춥고 눈 내릴 때는 가게 문 닫고 9시쯤 들어와 연탄재 버리려면 서글프고 귀찮아 하루를 넘기면 24장이 나 쌓이니 그날그날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분담하여 작년 겨울 그런대로 춥지 않고 돈 절약해가며 한겨울 잘 지냈는데 또 금세 추위가 찾아오네요.

예전에 기름보일러를 돌릴 때는 한겨울 추운 날에 집에 들어오면 썰렁한 기온이 감돌았는데 연탄불 피우고부터는 밖에서 떨다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훈훈하여 어깨를 활짝 펴고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작년 겨울에는 처음에 불 조절이 잘 안 되어 불도 많이 꺼뜨리고 석가탄도 많이 사다



날랐는데 지금은 요령이 생기면서 그 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다 좋은 연탄이 어떨 때는 정말 세 군데 다 불 조절이 제각각이어서 한쪽 같고 들어와 두어 시간 있다가 남편한테 코맹맹이 소리로 “연탄불 갈아야 하는데...”라고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남편이 알미워서 ‘그래. 두고보자. 연탄재 비닐봉지에 모아주나 봐라’라며 겹옷 챙겨 입고 집 뒤로 간답니다.

그런데 그놈의 연탄은 조금만 시간을 늦추어도 기다려 주지 않고 흰옷으로 바꾸어 입기 때문에 나가서 갈아주어야 우리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 내가 조금은 귀찮지만 오늘부터 열심히 연탄을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울겨울도 남편과 연탄 가는 것, 버리는 것 때문에 많이 다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으로 몇 달간 때우면서 편리한 기름 대신 연탄을 쓰는데도 그 기름값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눈꺼풀이 가벼워지는 이유

03

이 달의 편지

「 ㄱ 이면 봄이어서 몸이 늘어지고, 가을이면
봄 가을이어서 몸에서 기운이 새어 나가는
 ㄴ ㄹ 』 듯 구멍이 숭숭한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어느 한 날도 몸이 개운한 날이 없는 듯싶다. 밤이 되
 면 나는 전날 이삿짐이라도 나른 것처럼 몸이 천근만
 근, 물 먹은 솜뭉치가 되어 잠을 잔다.

“규현 엄마!”

어디서 새벽 찬 기운을 가르고 꿈속인 듯 현실인 듯
 나를 부른다. 거실에서 늦게까지 TV를 보던 남편의 부
 림이었다.

“규현 엄마! 나 얼음주머니. 눈이 또 아파.”

남편은 철강 업계에서 용접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나면 꼭 눈이 아파 얼음찜질을 해줘야 한다. 얼른 냉동
 실의 얼음을 주머니에 넣어 얼음찜질을 해주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때가 새벽 2시. 자꾸만 눈이 초롱초롱
 말뚱말뚱해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 전까지만 해
 도 나는 옆에서 누가 싸움을 하든, 뭐가 무너지든, 누
 가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한번 잠이 들면 그 다음날
 아침이나 되어야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밤 사이에 일어나는지….

형제 많은 우리 집, 아버지가 퇴근길에 간식거리라

도 사오시면 나는 아버지 퇴근 때
 까지 기다리지를 못해 그 간식을
 먹지 못했다. 어머니도 언니·오빠
 도 잠 많은 막내의 것을 남겨놓고
 싶었겠지만 깨워서 일어나 앉혀놓
 고 입에 물려 줘도 잠을 못 깨니 간
 식을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식구들에게 “어젯밤에 뭐
 먹었어?” 하고 심문하는 것이지만
 모두들 단합해 입을 다무는 통에 아
 침마다 나는 쓰레기통을 뒤져 증거
 물을 찾은 후 울고불고 떼를 써서
 다시 특별한 나만의 과자를 얻어 내
 곤 했다.

그후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쯤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밤중에 아이가 젖 달라고 우는데
 나는 잠만 자는 게 아닌지 그제 너
 무 고민이 돼 시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큰일났어요. 전 한번 잠
 이 들면 세상 없어도 못 깨어나
 는데 아이 낳으면 못
 일어나서 애 굶기는 거
 아닐까요? 어찌죠?”

“걱정마라. 지 새끼
 소리는 청천벽력이 나

도 다 듣는단다. 걱정하지 말어.”

정말 아이를 낳고 한밤중 아무리
 끓아떨어져 있어도 “응애” 하고 한
 번만 울면 고 새털 같은 아이의 미
 세한 움직임에도 눈이 번쩍번쩍 떠
 졌다. 뿐만 아니라 손님이 와서 시
 끌벅적 요란해도 안방에서 애기가
 엄마 찾는 소리는 내 귀에 단번에
 들어왔다. 정말 신기하게도….

반면 남편에게 잠이 깊이 드는
 증세가 옮겨갔는지 애가 밤새 찌렁
 찌렁 울어대고 보채도 꿈쩍 안 하
 다가 꼬집고 엉덩짝을 몇 번 맞아
 야 겨우 “어, 무슨 일이야?” 하고
 일어났다.

그렇게 키운 아이가 이제 초등학
 생이 되어 요새는 피곤에 지쳐 끓
 아떨어진 나를 깨운다. 울산바위보
 다 무거웠던 눈꺼풀도 아내와 엄마

의 이름 앞에는 새털보
 다 더 가볍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벌떡
 일어나지는 그 위대
 한 발견을 중년의 어
 느 가을 깊은 밤에
 한 것이다. 어느 날
 문득. ●



나인옥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5분 통닭조

04

이 달의 편지

「 군 대시절 제 임무는 ‘담벼락에 붙어’ 었습니
다. 물론 도시락을 까먹고 나면 오직 땡땡
」 이를 치는 맛으로 학교에 다녔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담벼락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지만 땡땡이
가 불가능한 군대에서는 자발적인 애정이 아니었지요.

단지 제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담벼락 이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참의
손가락 신호에 의해 밤마다 담벼락에 붙어 서 있었던
이유는 바로 통닭을 받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문에서
20년이 넘게 장사를 해 오신 주인아저씨와는 말로
주문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통닭 마리 수를 뜻하는 암
호로 주문을 합니다. 그럼 아저씨도 역시 언제까지 갖
다 주겠다는 시간을 손가락으로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시간에 맞춰 저는 움직입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
조는 들어봤어도 ‘5분 통닭조’라는 이야기는 금시초문
이었는데, 바로 제가 원조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통닭병으로 발탁된 이유는 팔뚝이 가늘
어서 담 사이의 뚫린 구멍에 손을 자유자재로 넣었다 뺏
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로 던지는 방법도
있었지만 콜라를 생각 못한 고참이 병에 맞아 눈이 퍼렇
게 멎는 사건 이후, 투척 전달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제 임무는 거기까지가 끝이었지요.

제 동기들은 제가 툭하면 통닭을
가져 왔기 때문에 제가 꽤 많이 먹
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달한
후 “수고했다”는 말만 듣고 돌아섰
습니다. 얻어 먹어보겠다고 괜히
알짹거리다 찌꺼기 청소는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 후문에 중국집이 문을 열
었는데 거기는 거리상 손가락 암호
가 먹히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
에서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공중전화
로 시간에 맞춰 주문을 했고 배달하
는 사람을 저희 담벼락 아지트로 불

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통닭이야 대충 밀어 넣
으면 그만이었지만 자장면은 그릇
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전달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리 5
분 대기조였겠습니까. 준비한 봉투
를 배달부에게 전달한 뒤 봉투에 쏟
으라고 했지요. 자장면을 그렇게 검
정 비닐봉투에 담아왔고, 짬뽕은 닛
에 수거해 둔 일회용 컵라면 용기를
전달해 조심조심 건네받았습니다.
탕수육은 코팅용지를 붙여 특별히
생산한 양파망에 담아왔습니다. 너
무도 완벽히 담아오던 제 실력에 고
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5 November >> 25



최성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소가 된 영감

05

이 달의 편지

하지만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도 고참들은 고작 수고했다며 냄새만 잔뜩 남은 봉투와 용기를 던져주고는 끝났습니다. 속에서는 '저것들이 고참 맞아?' 하는 분노의 소리가 울렸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열심히 달려서 가져온 음식을 몰래 먹던 저희 내무반에 아주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중국집이 잘 되자 정문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던 정문 원조 아저씨가 후문 근처에 식당 하나를 다시 오픈하신 겁니다.

군인 수가 얼마나 된다고... 저건 동반자살하는 꼴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깨졌습니다. 새로 생긴 그 식당의 배달비결이 너무도 서프라이즈했습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가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술 더 떠 음식을 전달받으려는 손등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뽀뽀가 아닌 성과급제였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은 그냥 1초, 짬뽕은 3초 정도 그리고 탕수육은 10초간 해주는 매상량 비례 뽀뽀였습니다. 삼시간에 소문이 영내 전체에 퍼지자 그때부터 고참들이

서로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설쳤습니다. 비록 손등의 행복은 뺏겼지만 그래도 무조건 주문한 고참들 덕에 남아도는 특별간식은 밤마다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녀를 만나겠다는 경쟁이 심해 주문이 폭주하는 바람에 밤마다 담벼락을 사랑하는 사병들이 늘자, 간부들 귀로 비밀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손님을 모두 뺏긴데 흥분한 후문 중국집 아저씨가 사단에 정식으로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모든 담장에 나 있던 구멍들이 확실하게 메워졌고 순찰이 강화돼, 그 이후부터는 손등의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휴가 나갔을 때 후문 옆에 새로 생긴 중국집부터 찾았습니다. 말로야 휴가 나온 군인이니 중국집부터 찾는다고 했지만 목적은 뻔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 중국집은 그 사태 후 자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추억을 나눴던 고참들과 후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절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는 오늘 우리 영감 흥 좀 보려고 합니다.
저 우리 영감은 말 그대로 보수적이고 참으
「 」 로 고리타분한 사람입니다. 뭐 옛날 남자들이야 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결혼해서 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동안 아이가 울어도 한 번 안아주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바쁜 농번기에 늦게까지 농사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온몸이 나른한데 저녁밥 지을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봐주면 편할 텐데 영감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울면 되레 큰소리를 치곤 해서 한밤중에도 아이가 울면 엮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려서 들어온 적도 많았답니다. 쌀쌀한 겨울밤에는 휘영청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한 적도 많았 다니까요.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속으로 '내 이놈의 영감, 나중에 두고 보자' 고 마음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때 아이들도 얼마나 유별났는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악을 쓰고 울어대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아이를 엮고 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당연히 요즘 신세대 아버지들처럼 아이들과 손을 잡고 놀러가거나 뽀뽀를 한다거나 하는 건



강석분

충남 예산군 오기면

상상도 못 해볼 일이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바로 매를 들어 불호령이 떨어졌기에 아이들 모두 아버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말을 섞는 일도 없고 또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가부장적이고 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어느새 커서 하나 둘씩 출가를 하더니 저희에게 할머니·할아버지의 호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아이들 산후 조리할 때도 딸은 손자 영딩이를 두들겨 가며 “누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갑자기 낯아든 엄마의 호된 야단에 손자 녀석도 두 눈이 동그래져서는 금세 눈물을 콧물 쏟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큰딸의 아이는 시골에만 오면 하루 종일 쿵쾅거리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큰손자가 돌이 지나 제법 걸음도 잘 걷고 할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큰딸 내외가 시골에 내려와서 여름휴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천방지축인 손자에게 큰소

리 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고 있던 차에 아 글썽 이놈이 겁도 없이 낮잠을 자고 있는 할아버지의 배에 올라가 뛰더니 다시 할아버지의 귀에 크게 소리를 질러 달게 자던 낮잠을 깨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자 이번엔 머리를 부여잡더니 “으랴, 음메야” 하면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비롯한 큰 딸은 손자 영딩이를 두들겨 가며 “누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했고, 갑자기 낯아든 엄마의 호된 야단에 손자 녀석도 두 눈이 동그래져서는 금세 눈물을 콧물 쏟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딸대로 저는 저대로 언제 불호령이 떨어질까 싶어 온 식구들이 할아버지의 다음 행동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할아버지는 “음메, 음메” 하더니 무릎을 꿇고 울먹거리고 있는 손자에게 등을 내주며 타라는 시늉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울먹이던 손자는 할아버지의 등에 타고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놀았고, 우리 식구들은 그 풍경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자의 재롱이 늘어갈수록 이 주책맞은 영감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살던 딸에게도 안부전화 한 통 안 하던 양반이 손자녀석이 잘 있느냐며 가끔 저 몰래 전화도 하고 언제 내려올거냐며 은근한 협박조로 전화를 한다는 딸아이의 말을 들으니 참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손자가 온다는 날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큰딸 내외를 기다리기 위해 하루 종일 대문 밖을 서성이기 시작했고, 한 번도 자식들을 업어 주기는커녕 안아 주지도 않던 사람이 큰 손자가 오면 새가 먹이를 채가듯 손자를 빼앗아 가서는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손자 자랑을 입이 닳도록 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마다 자기 자식들이 울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호통을 치던 사람이 “아이가 우는 것은 당연한데 왜 자꾸 우는 애를 더 야단치는 거? 애들은





06

이 달의 편지

정 많은 5층 언니

「 칠 전, 우리 아파트에 반상회가 있었습니
며 다. 반상회 불참 시에는 벌금이 3,000원
」 이라서 어지간하면 참석을 하려고 합니
다. 어른들이 바쁘거나 못 오실 경우에는 아이들이라
도 보내서 벌금을 면제받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날은 11층 언니네 반상회 차례라서 모두들 시간이
되자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가 올라갔을 때는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대고 있더라고요. 그때 늦게 나
타난 5층 언니가 사람들 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더니
만 큰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자, 지방방송 그만하고 반상회나 합시다!”

갑자기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순간의 정적이 흐르고
반장님의 조심스런 안건으로 반상회를 시작하려는 순
간 갑자기 10층 수정(가명)이가 일어나더니

“죄송합니다. 먼저 내려 갈게요.”

하며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을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아이를 보내고 반상회를 마치고 나
서 참다못한 5층 언니는 기어이 한소리를 했어요.

“당사자 없는 데서 남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있는데 속이 멀쩡한 애가 그만한 눈치도 없을
까봐. 안 그래도 엄마가 집을 나가서 맘이 적잖이 상처

살살 달래야 알아 묵지?” 하면서
우는 손자를 번쩍 안고 밖으로 나
가선 울음을 웃음으로 만들어 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손자녀
석도 할아버지가 자기를 예뻐하는
줄 알고 할아버지를 어찌나 따르는
지 울다가도 할아버지가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치더군요. 이 일을 동
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아이
고,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애들 예
뻐한대. 우리 영감두 그랬잖아. 첫
손자니깐 월매나 이쁠까? 이젠 조
금 철이 드나버. 그럴거문 자기 자
숙들 좀 그렇게 예뻐해 주지. 자기
자숙은 어서 데리고 온 업둥이 취
급 하더라니께. 우리 영감두” 하시
더군요.

내 자식 키울 때는 먹고 살기도
버거운 형편에 매일 울어 대기만 했
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저에겐 세 명
의 손자·손녀가 있는데 저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아이
들을 몰고 나가 논에서
개구리도 잡아 보여주

고 메뚜기도 잡아서 보여주며 자연
학습까지 시킨답니다. 또 아이들은
시골에만 내려오면 모두 할아버지
의 자가용인 자전거에 매달려 태워
달라고 하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또
마당에 키우는 강아지와 닭을 보러
가자며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고 있
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머리 휘날리도록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일곱 살
먹은 손자 녀석은 엄지손가락을 치
켜 들고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짱”
이라면서 할아버지를 추켜 세워주
고, 이 맛에 우리 영감은 또 신이 나
서 입이 헤 벌어지는 게 일곱 살 먹
은 손자와 웃는 모습이 똑같이 지
곤 합니다.

이제는 손자들이 오면 아예 소가
될 자세가 되어 있는 우리 영감, 젊
었을 적엔 자기 자식들 예뻐해 주
지 않아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도
사랑도 많으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젊어서 자식들
안 예뻐해 준 똥만큼 손
자·손녀들은 마음껏 예뻐
해 줬으면 합니다. ●



김수정

울산시 북구 매곡동

나고 아플 텐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고 그래요?”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모두들 서로 눈치만 보다 맛있는 백설기 떡에다 땅콩 찢 것, 과일을 먹는 등 마는 등하고 해산했죠. 그리고 이틀 후 5층 언니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언니가 김밥을 싸고 있더라고요.

“웬 김밥이에요?”

“먹고 싶어서 싸다.”

“식구도 없는데 뭐 이리 많이 싸요.”

“갈라먹을라꼬!”

“저도 주실 거죠?”

“그래 줘야지. 다 나눠 먹어야지. 이따가 10층 수정이 보면 우리 집에 보내그라.”

“왜요?”

“김밥 좀 같이 먹게.”

“내가 가져다줄게요.”

“됐다. 갖다 주는 건 내도 할 줄 알지만 같이 먹을라꼬 그란다.”

언니의 그 깊은 맘에 넘어가던 김밥이 목에 걸려 혼났어요. 물론 김밥 몇 줄 싸서 갖다 주면 되겠지

만 집 나간 엄마도 없이 집안 살림 하면서 학교 다니는 안쓰러운 수정이 생각에 언니는 엄마의 따뜻한 정성이 담긴 김밥을 따뜻한 계란국물과 함께 먹이고 싶었고 툭 던져주는 동정의 김밥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정을 담은 김밥을 먹이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주 작은 배려 같지만 그건 정말 상처나지 않게 동정받는다는 생

각이 들지 않게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싶었어요.

“니들 사람 없다고 함부로 지껄이지 마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가고 나니까 수정이 엄마가 새 엄마라는 등 그래서 애들 구박하더라는 등 얼마나 모질면 자식새끼 버리고 집 나갔냐는 등... 느그가 봤나? 남의 애기 쉽게 하지 말그라. 그라고 아래 반사회 때도 그기뒀꼬? 생각없이, 아가 있는데 아 앞에서 안 그래도 집 나간 엄마 때문에 상처나고 아플 아이 앞에서 즈그 엄마 욕해대면 아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플지 와 그걸 모르노. 지그도 다 자식 키우는 엄마면서 쫓쫓쫓. 니라도 그라지 말고 맛있는 거 하면 무턱대고 동정하지 말고, 아 상처 안 나게 기쁜 맘으로 나눠먹고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자주 챙겨보고 그래라. 알겠나?”



“네.”

그 말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

고 창피하고 말할 수 없이 미안해서요. 그 후로도 언니는 수정이 불러다 피자 시켜서 먹이고 떡볶이 만들어서 우리 집하고 1층 언니네 그리고 수정이네까지 챙겨서 나눠주시고는 널모레면 수정이 오빠가 수학여행 간다며 다시 또 김밥재료를 사서 들고 왔어요.

언니하고 시장 봐서 돌아오는 길에 학교갔다 돌아오는 수정이 남매를 만났어요.

“수철아, 니 널모레 수학여행 가제?”

“네.”

“아이고, 현주 누나도 그날 수학여행 간다 아이가. 내가 김밥 쌀라고 마이 사왔는데 니 김밥하고 수정이꺼까지 싸가 줄 테니까 맛있어도 맛있게 먹고 잘 놀다 오그라. 그라고 누나가 니 수학여행 간다고 음료수 사놔다 카드라. 이따 저녁에 와가 가가라.”

“수철이는 좋겠다. 언니야 내도 김밥하고 음료수 좀 주나?”



“시끄럽다. 니꺼는 없다.”

큰소리로 얘기하는 언니의 목소리에 그저 할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작은 정인데 그정을 나눌 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옷사춘. 먼 친척보다 이웃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걸 왜 모르고 살았는지. 김밥 싸면서 몇 줄 더 싸고, 음료수 사면서 몇 개 더 사고, 나 밥 먹을 때 불러다 숟가락·젓가락만 놓으면 되는데, 아이들 뒤에서 동정만 보내고, 아이들 마음도 모르고 상처난 얘기나 하고 맞장구치고 그랬던 한심한 제 자신을 깊이깊이 반성해 봅니다.

언니처럼 지혜롭게 아이들이 동정이라고 느끼지 않게 작은 정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널모레 수철이 수학여행 때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5층 언니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언니의 따뜻한 정과 사랑 때문인지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잃고 풀죽어 있던 남매가 요즘 한층 밝은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

나는 버릇없는 큰딸

07

이 달의 편지

「 」 마 전 밤 늦은 시간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딸 격」 」 정이 되어서 전화하셨나보다’라고 생각하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만 멍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회사 그만 둘란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능력을 인정받고 계셨고, 단 한 번도 명예퇴직이나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에 충격은 더더욱 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라고 여쭙보니 요즘은 일명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사에서도 감원바람이 불어서 힘드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위로를 해드릴까? 아니면 안 된다고 무작정 떼를 써봐? 아버지가 그만 두시고 나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지? 뭘 해서 먹고 살지? 이럴 때 드라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명예퇴직 당한 주인공 아저씨가 감동을 받으며 힘을 얻었더라?’ 그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생각



안선미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이 머리를 스쳐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은 있으세요?”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장사는 아무나 하고, 농사는 아무나 지어요? 지금까지 회사일 밖에 안 해보셨는데…. 그리고 지금이 어려울 때 장사해서 그나마 있는 돈 다 날리시려고요? 그리고 장사할 돈이나 있으세요? 10억을 벌어들여요. 20억을 벌어들였어요. 자식은 하나도 결혼 안 했고, 대학생이 두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생각해도 참 예의가 없는 딸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아버지께 힘이 돼야지. 누구보다 힘든 건 아버지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찌 말은 그렇게 안 나오던지.

“아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분명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린 뒤 전화를 끊고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야.

큰딸로서 스물여덟 살 먹을 때까지 뭐하나 해 놓은 게 없잖아.’ 이렇게 혼자 자책도 해보고 ‘정말 그만 두시면 어떻게 하지? 퇴직금이 어느 정도지? 그걸로 장사를 하면 뭘 해야 할까? 대학에 다니는 동생들은?’ 이런 생각으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께 직접 전화는 못 드리고 어머니께 몰래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기분은 어때요? 별 말씀 없으세요?”

“몰라. 아무 말 안 하신다. 나도 눈치 보여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눈치보고 살고 있다. 내가 다 숨이 막힌다.”

“엄마가 무조건 잘 해 드리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아빠 비위 잘 맞춰주시고, 집에 와서는 신경 쓰시는 일 만들지 말고요. 알았죠?”

“알았다. 걱정마라.”

이렇게 무슨 비밀 접선하듯 하루 하루 아버지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얼마 동안 이상하리만큼 조용해 더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늦은 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



니다.

“아빠, 승진했다. 정년도 2년 정도 연기됐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는 정작 “정말이에요? 발표 났어요?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냥 떠도는 소문은 믿을 거 못 되는 거 아니죠?”라고 무뚝뚝하게 말했죠.

사실은 가슴이 터질 정도로 기뻛는데 말은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 제 자신이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친척들한테

“정말 옷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

런데 딸아이

가 말려서 못 했

지요. 얼마 벌어들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딸 덕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번 일이 저에게 힘들었지만 저 자신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혹시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부족한 점까지 사랑해주시고 자랑스러워 해주시는 엄마·아빠 사랑합니다. ●



만이의 짐 홀로 졌던 언니

08

이 달의 편지

「 리 언니는 저랑 여덟 살 터울이고, 지금
우 은 서른세 살입니다. 키도 자그만하고 초
」 등학생 딸을 둔 그저 평범한 아줌마지요.
그렇지만 우리 언니는 너무도 큰 마음을 지녔고, 큰 아
픔을 경험했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큰 사람입니
다. 그런 언니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니는 1남 2녀 중 장녀입니다. 지긋지긋한 시골 고
생이 싫어서 무작정 아빠랑 결혼한 엄마. 그런데 불행
하게도 아빤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평소엔 너무도
깔끔하고 반듯한 아빤이었지만, 한번 술을 입에 대시면
몇날 며칠을 마셨습니다. 덕분에 순박했던 엄마는 아
이들을 등에 들쳐 업고 리어카로 가구배달을 다니는
억척스런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언
니는 항상 어른스러웠고 공부도 무척 잘해서 항상 1등
과 반장을 놓치지 않았지요.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엄
마를 대신해서 언니는 우리에게 엄마였고, 선생님이었
고, 보호자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술 냄새를 퐁퐁
날리며 누워 있는 아빠는 기도원과 병원 등을 들락거
리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갈 수 없는 엄마를 대신해 어
린 언니가 아빠의 퇴원 절차를 밟으러 다녔죠.

한번은 통영에서 양식일을 해보고자 서울 집에서 왔

다갔다 했었는데, 통영에 내려가셨
던 아빠가 그곳에서 또 술의 유혹
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연락
을 받았습니다. 겨우 중학생이었던
언니는 여섯 시간씩 버스를 타고
통영까지 가서 술 취한 아빠를 모
시고 왔었죠. 서럽고 힘들 법한데
언니는 항상 담담하고 어른스럽기
만 했습니다.

줄곧 1등만 하던 언니였는데, 언
니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
상에 진학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상처들이 언니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언니가 고등학생이던 때에 이렇게
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부모님
은 이혼을 하셨고, 우리 3남매는 엄
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더 억척스럽게
살고, 몇 년 뒤에는 아파트도 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부터 아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모든
잘못이 아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언니는 뛰어난 학업성적
으로 고3이 되자마자 취업이 되었
고, 우리 집과 현 생활에 너무나 기
뻐하며 생활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언니는 스물
두 살의 어린 나이에 직장에서 형
부를 만났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
다. 결혼을 하자마자 언니는 아이
를 임신했는데, 기뻐할 틈도 없이
엄마의 잘못된 보증으로 한순간 우
리 집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
다.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그렇
게 행복은 짧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엄
마와 오빠와 저는 감감한 밤 집을
떠나야 했죠. 빗쟁이들을 피해 여
관을 전전하며 지내던 우리를 챙기
고, 몰려오는 빗쟁이들을 감당해내
고 무거운 몸으로 그 한여름에 제
학교까지 걸어와 사정을 이야기하
고 전학을 시켜야 했던 우리 언니.
홀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언니네
까지 빗쟁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
고, 결혼생활은 좋을 리 없었습니
다. 시어머니의 호된 시집살이 속



애청자

에서 언니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모네 집으로, 오빠는 군대로, 엄마는 지방 어느 곳으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멀리 떠나던 날 새벽, 아이엄마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언니인데, 해가 뜨기도 전에 문을 나서는 엄마를 보고, 파란 입술을 부르르 떨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가 언니 나이 스물 셋이었습니다.

아기엄마가 되어서일까, 언니는 스스로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이모집에 있던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

고, 군대갔던 오빠까지 모두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 중지자였던 엄마가 어느 날 검거가 되었고, 구치소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언니는 어린 아이를 업고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무혐의로 풀려나셨지만, 그 후로도 몇 년씩 크고 작은 소송들이 접수됐고, 그때마다 언니는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안 되겠는지 언니는 우리 가족과 합쳐서 살게 되었어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언니는 우리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술꾼 아버지와 어린 두 동생, 능력 없는 남편과 아이까지 모두가 언니의 무거

운 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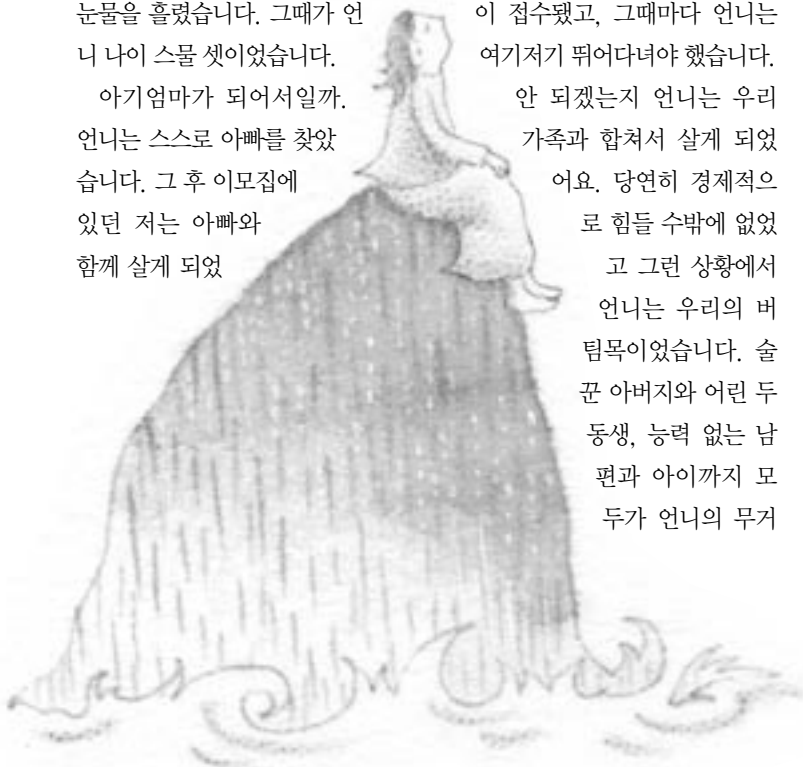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형부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적반하장인 태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충격으로 언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빠 또한 술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에도 언니는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든 가슴을 부여잡은 채 술 취한 아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두컴컴한 그 먼 숲길을 홀로 걸어 내려와야 했던 우리 언니... 칠혹 같은 어둠 속을 홀로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빠는 다행히 신앙으로 술을 이겨내셨고, 오빠도 결혼을 했고, 언니 딸도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언니보다 훨씬 훌쩍 커버린 딸을 끌어안고 잠든 언니를 보면서, 언니의 지난 삶이 생각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도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언니.

남들은 세상을 한창 즐기고 느끼막이 결혼하는 서른세 살. 이제는

어린 딸을 위해 밤새 일하는 언니에게는 서른세 살이라는 나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픔이란 글자로 언니의 나이를 지워버렸거든요. 늘 당당하고 씩씩했던 언니에게서 요즘 작은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작지만 큰사람 올 언니... 그런 언니에게 행복이라는 글자로 나이를 되찾아 주고 싶어요.

‘언니! 아주 작은 꼬마 때부터 언니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픈 내 배를 쓰다듬어 주고 열나는 내 머리를 만져주고 늘 토닥여 주었었지? 성숙한 아가씨가 되었는데도, 아플 때면 언니 손길부터 찾게 되네. 이제 빨리 시집 안 가면 값 떨어진다고 투덜대면서도, 얼마 전 체한 내 손을 파주면서 ‘이그, 손이 아직 애기네’ 하는 언니의 그 말에 엄마처럼 따뜻하고 어릴 적 생각에 순간 가슴이 찡했어. 눈물이 날까봐 얼마나 참았는지. 이제는 덜 힘들게 해주고 싶은데, 못난 동생은 아직도 언니에게 짐뿐이다. 너무 미안하고, 열심히 살아서 꼭 언니에게 보답할게. 제발 건강 좀 잘 챙기고, 너무 고맙고, 사랑해~’ ●





첫사랑을 찾은 여행

09

이 달의 편지

「 리 좀 해요. 늦었어. 혼아! 넌 뭐하니, 신
“발 발부터 좀 신어라. 응?”

「 」 결혼 8년 만에 떠나는 첫 휴가였다.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만큼 자리도 잡게 되어, 큰 마음 먹고 가볍게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사실 내가 왜 몇날 며칠을 잠 못 이웠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건 단지 처음 떠나는 여행길 때문만이 아닌, 내 첫사랑, 아니 나만 아는 짝사랑을 찾아가는 추억의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목욕탕에도 같이 다니고, 아버지들끼리 같은 계통에서 장사를 하시다 인연을 맺어 이담에 크면 서로 사돈하자며 농담으로라도 이미 장래를 약속했던 그런 사이였다. 나는 몹시 똥똥했었고, 얼굴에는 여드름 투성이였다, 교복 자율화가 원망스러울 만큼 소녀다운 옷도 입고 다니지 못했던 아이였다. 스무 살이 되어도 그는 대학생, 나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내 친구였다. 그 친구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나는 라면 박스에 가득 간식도 꼭꼭 챙겨 보내 줬고, 절대로 내 마음을 들키지 않을 만큼의 편지도 보내줬다. 난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차마 ‘좋아한다’, ‘기다린다’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언

젠가는 그가 이런 내 핑크빛 사랑을 짐작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고 동창을 약속장소에 데리고 나갔고 셋이서 영화 한 편 보고 난 후 그제 내게는 너무나도 큰 실수였다는 것을 한 달 후가 지나 깨닫게 됐다. 1년이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그렇게도 내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고, 훼방을 놓아도 뭐가 그리 좋은지, 그들은 스물여섯,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을 했다. 성악을 전공하는 그는 빨리 결혼을 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내가 미처 다른 작전을 세우고 실행하기도 전이라 난 손을 쓸 시간조차 없었고, 그동안 공들인 세월을 누구에게 보상받냐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우리 엄마는 딸내미 속도 모르고 “지금 밖에 눈 온다. 결혼식 날 눈이 오면 잘 사니 꼭 그렇게 살라”고 덕담을 하셨다.

나는 ‘흥. 잘 사는 것 좋아하시네. 이 추운 날 목 흰히 드러나는 드레스 입고 밖에 나가 촬영하다 꿈

꿈 얼어버려라’며 못마땅해 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오랫동안 아기 소식이 없어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게 했던 이 부부에게 예쁜 공주가 생겨났고, 부산에서 살고 있는 이 부부는 나와 남편을 애기 백일잔치에 초대했다.

“저참, 당신 중매 하나 잘 엮었어.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곳에 초대도 받고 말이야.”

솔직히 남편에게 털어놓아도 뉘탈이 없을 만큼 내게 강렬했던 추억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 나는 예전의 내 감정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여행 가기 열흘 전부터 긴급 다이어트 작전에 돌입하며, TV 자막이 안 보일 정도로 독하게 밥을 굶기도 했고, 조금 더 어려 보이게 하려고, 헤어스타일도 생머리로 바꿨다. 이틀에 한 번씩 마사지를 해대고, 한꺼번에 교양과 지식을 쌓으려고 인터넷을 뒤적이고, 책을 끼고 사니, 임신도 안 했는데 입덧까지 다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남편에게 내린 ‘긴급명령’.

“당신, 무조건 내 친구들 앞에서



백정희

대구시 북구 태전동

나한테 여왕마마 모시듯 하는 거야. 알았지?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 표시 안 나게. 이거 성공하면 내가 양복 한 벌 해줄게.”

“하이고, 참, 당신 미경 씨에게 기 죽기 싫어 그러지? 알았어. 내가 부산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테니까, 당신은 닭살 밀 준비나 해 뒤.”

나를 놓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남편의 뛰어난 연기였다. 식당에서 매추리 알 껍데기를 벗겨 내 입에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호칭도 평소에는 “어이” 내지는 “훈아!”, 심지어는 “야!”라고 불렀었는데 갑자기 “그대, 이리 좀 와 보세요.” 이러면서 깍듯이 경어까지 써 대는데, 일곱 살 우리 아들 녀석이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꼭 바보 같아.”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던 저녁. 난 이상하게도 그 친구보다는 내 남편의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되었다. 참 이상했다. 매일 봐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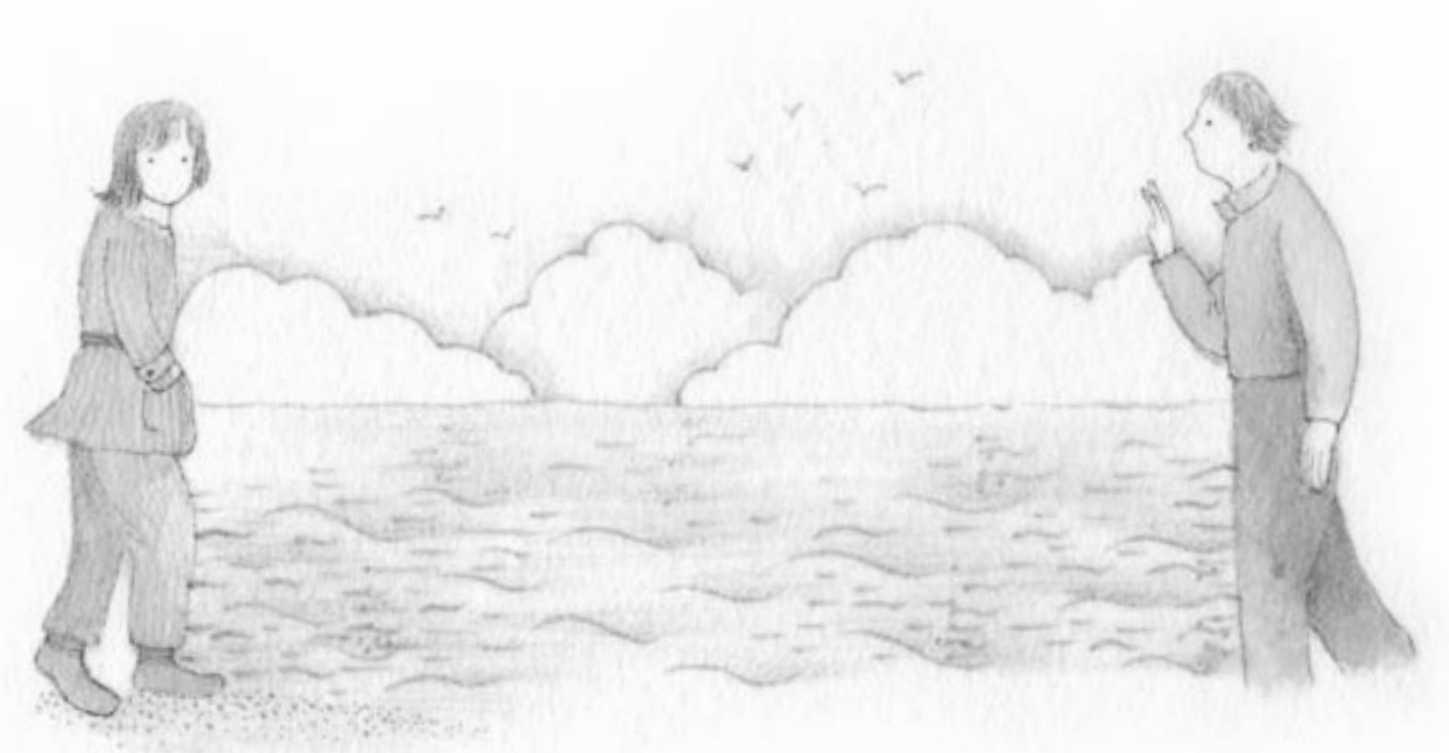
겹기까지 한 얼굴인데, 술 한 잔 해서 그런가? 더 이상한 것은 10년 만에 만난 그 친구 앞에서 가슴이 떨린다든지, 옛 추억이 아른거린다는지, 뭐 이런 지극히 당연한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써 지난 날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아파서 함께 들춰 엮고 응급실로 뛰던 일, 정신없었던 돌잔치, 남편의 실직과 재입사 그리

고 승진까지의 눈물과 웃음으로 범벅이 되었던 모든 기억들이 나와 남편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고 있을 기억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내게는 나 혼자만의 영상으로 가슴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10년이나,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내 첫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녀석은 그저 내 첫 남자

친구였나 보다. 대신 오늘 아침에 닭죽을 끓여주니 “도대체 이놈의 닭죽은 먹어도 먹어도 왜 없어지지 않냐”며 짜증을 내던 그 원수 같은 남편이 바로 내 첫사랑인 것이다. 내 첫 남자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내 허상은 사라지고, 지금 내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 평생 후회할 뻔했다는 깨달음을 안고 온 여행이었다. ●





스물아홉 사내의 서른 바라보기

10

이 달의 편지

「」는 올해 스물아홉 살의 총각입니다. 지금
저은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
「」원이고, 고향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독거 직장인이며, 부모님 용돈과 남동생 학비를
챙기고 있는 경제적 가장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성시대 애청자는 아닙니다. 여성시대
가 방송될 시간에는 하루 업무를 준비하고 시작하기에
바쁜 시간인지라 주중에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
다. 그래도 주말에는 부지런히 듣고 있으니 너무 실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애청자도 아닌 제가 여성시대에 글을 올리게
된 연유는 퇴근을 하고 자취방에 들어서서 불을 켜고,
넥타이를 풀어 제치고, 냉장고의 시원한 물을 몇 모금
들이켜고, 양말을 벗어 아무 생각 없이 방바닥에 던지
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내 이십대도 3개월
남짓이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내 청
춘 이십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두 진행자분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30대가
무척이나 무섭기만 합니다. 공자는 30세에 마음이 확
고하여 움직이지 않았다는데, 저는 이립의 경지는 고

사하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사소한 것에도 쉽게 화내
고 빠치곤 합니다. 환절기에
쉽사리 감기에 걸리듯, 세대
가 바뀌는 탓에 마음에 감기
가 걸렸다고 혼자 위로해보
지만 꼭 해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시작도 못한 채 시간에 문
혀 사라져가는 것을 마냥 바라보고
있노라면 갑자기 눈물이 날 때도
있답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갔는데 어머
니의 며느리 타령과 아버지의 잔소
리에 스물아홉의 자신이 실감났습
니다. 아무개 아들은 지난해 결혼
해서 손자를 안겼다는 둥 며느리
덕에 명절날 더 이상 고생 안 하게
해달라는 둥 추석날 차례를 지내고
아무 생각 없이 술 먹고 방에서 잠
만 잤습니다.

짜이 없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
런 잔소리 들을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울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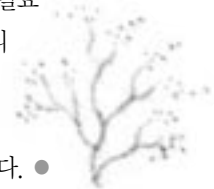
친한 친구 두 명이 있는데 한 친
구는 결혼해서 아파트에 신혼살림
을 차렸고요, 또 한 친구는 한참 장
밋밋 사랑에 빠져 연애하고 미래를

설계하느라 바쁩니다. 내 친구들
이 그러할진대, 아직도 전 다세대
월세방에서 홀아비 냄새 폴폴 풍
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
구들과도 예전보다 멀어진 것
같고,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되
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 외에
는 따뜻한 밥 해주는 이도 없고, 주
로 회사 식당이나 집 근처 식당에
서 조미료 듬뿍 들어간 식사를 그
것도 혼자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 신세타
령이 늘어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겠습니까? 어
차피 오는 30대. 다시 시작해야지
요, 그래서 저만의 30대 모토를 정
했습니다. '사랑하는 30대'.

저 다음달 초에 이사를 갑니다.
물론 바로 옆 동네 다세대 자취방
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새 집에서
30대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하
니까 그동안 불필요

한 짐을 다 버리
고 새로운 마음
으로 정말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



조한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나 좀 제발 살게 해 줘!”

11

이 달의 편지

「 가 왜 여기에 누워 있냐. 니가 왜 여기 있느냐고. 너희 아버지 젊어서 땅에 묻고 」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니가 왜 이러는 것이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커서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단 말이나. 내가 너 대신 죽고 싶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의 울부짖던 파울음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 전 가족들과 네 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영원히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올케언니의 기일입니다.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마음 한구석의 쓰라림으로 오늘밤 잠을 쉽게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언니는 자궁암 재발이라는 선고 받고 원자력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2~3년 정도 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 모두를 어둠의 낭떠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언니에게 희망을 줬는데, 언니는 6개월을 조금 넘긴 추석 4일 전 결국 서른아홉 해 숨쉬기를 멈췄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았는지 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병욱이 두고 내가 어떻게 가. 병욱이, 엄마 없이 어떡해. 제발 나 좀 살게 해줘. 병욱이 열 살까지만 살게 해줘. 제발.”

언니는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며 제발 살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심정이라 짐작

만 해봅니다. 며칠이 지나자 언니는 마음의 정리를 했는지 가족들을 하나하나 불러 마지막 당부들을 남겼습니다.

남편인 큰오빠에게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거였으면 진작 말해주지! 나에게 정리할 시간은 주지 그랬어! 엄마 없으면 기죽으니까,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고, 잘 길러줘. 행복하게 살아줘. 그리고 정말 미



조수연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해. 미안해” 하며 언니가 더 미안해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13년 동안 살면서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없으며 친정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세상에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50만 원을 손에 쥐어 드리고, 손자들을 기르실 수밖에 없는 어머니께 가장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작은오빠와 고모인 저에게도 조카들 부탁한다고, 네 명이나 되어 미안하지만, 그래도 부탁한다고 합니다. 오빠도 울고 언니도 울고 우리 모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카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때는 목이 메어 왔습니다. 초등학교인 세 딸과 만 네 살도 안 된 막내,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두고 가려니 얼마나 가슴이 아려 왔을까? 언니는 막내 병욱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형제 서로 아껴주고, 돌봐 주고, 울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하면서 살아. 병욱아!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장난감 많이 사고,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올게. 아빠랑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울지 말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병욱아! 병욱아!”

죽음이 된지 모르는 여섯 살배기 병욱이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과거를 사달라고 껌속말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언니를 땅에 묻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병간호도 같이하고, 어머니 칠순 때 제주도로 여행도 가고, 세월이 흘러 어머니 돌아가시면 같이 울어주고, 지금처럼 남의 흉도 보고, 10년 넘게 김장김치 해주었듯이 그렇게 회로애락을 같이하며 살아줄 거라 믿었던 언니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 버렸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되돌아본 언니의 자리에 칠순이신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서른여섯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또다시 칠순의 나이에 며느리를 땅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삼 남매를 온몸이 부서지게 기르시고, 이제는 자식들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철없는 네 명의 손자들 손을 잡고 계십니다. 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신 후로는 눈물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면 오빠가 더 견디기 힘들어 할까봐 절대로 우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결혼 후 제게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쓰러지시면 제가 견딜 수 없을까봐, 식사도 못 하시며 정신없는 저 대신 제 아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으니까 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예쁜 자식들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고, 참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 기운내자.”

아마도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스스로에게 하셨던 다짐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삼

남매를 보물이라

여기며 사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으신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 다시 어머니에게 웃음을 어떻게 찾아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일 먼저 기운을 내십니다. 앞장서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려 하십니다.

이런 어머니 덕에 우리 형제는 잘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카들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힘을 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밤에 기도해봅니다. 새벽녘이 되면 정안수를 떠놓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시련이 오지 말기를... 그리고 언니의 명복을 빕니다.

기슴으로 자식들을 안고 갔을 언니도 편안한 안식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희망을 일구는 터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이알찬 씨

사실 저는 여성시대청취자는 아닙니다.

근대시절인가 모질 공부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나니 그것도 이미 3년 전은 지난 일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마 하고자 하는 말은 '조용필 콘서트 티켓 좀 주세요'입니다.

기도 안 차 화도 나시겠지마는 저도 기도 안 차 가슴이 턱막히는 경우라 어쩔 수 없이 문제의 근원지인 여성시대에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 3년차 교사입니다. 제마 말고 있는 문해교육반이라 명명하는 학급은 실상 '가, 나'부터 배우는 한글 기초반입니다.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학력 이하로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그나마 배움을 찾아 이곳까지 온 학생들은 제 삶에 나눌래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자부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 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 반에는 첫 번째 40대 학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성시대 왕팬이자 모든 라디오 방송을 섭렵하는 히스테리 대마왕입니다. 이 여자는 특하면 수업 거부와 식욕을 전폐하는 빠지기 대마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걸 수업하는 제마 상전은 모시듯 해야 하는 전희양 1등 문해학생입니다.

일주일에서 몇 야하하게 나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는 그녀가 그렇게 성질이라도 내지 않으면 얼마나 싫어 대부분 밤에 주는데 그럴수록 히스테리가 점점 늘어갑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를 섭렵하고 있는 그녀는 조용필의 왕팬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였나요! 그녀가 여성시대에게 먼들 어지거 업서 보 내걸 조용필 콘서트에 갈 수 있는데 한글도 아직 다 모르고 글도 못 쓰는 세상 살랴 안나 이렇게 살아서 뭘하나. 그러더니 내뽀 일주일째 수업 거부 중입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청취자도 안 되 는 몸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녀에게 기회를 할 뻔만 주십시오.

조용필 씨를 먼발치에서 보기만 하해도 한글 수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첫 번째는 그녀가 여성시대에게 직접 업서 줄 수 있는 그 날이 오 기를 바랍니다.

「 」 의 마지막 주 여성시대 앞으로 이런 발칙하고 발랄한 청년의 글이 도착했다. 조용필 씨 콘서트 티켓 신청은 이미 끝난 상태 L 」 였으나 스물일곱 청년의 뜻이 가상해 제작진은 부랴부랴 콘서트 기획처에 연락을 하여 공연 하루 전날 티켓을 무사히 40대 노처녀에 다 히스테리 대마왕인 '그녀'에게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청취자는 아니라는 당당한 솔직함으로 제작진의 마음을 움직인 이알찬 씨. 이 청년의 사는 모습은 어떻게 궁금증을 안고 '노들장애인야간학교'를 찾아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장애인 야학인 '노들'은 노란 들판의 준말이라고 한다. 노랗게 익어가는 결실의 들판처럼 글을 익히는 모습들이 가히 틈실하게 익어가는 벼를 바라보는 듯하다. 이알찬 씨는 이제 3년차 교사다. 배움의 세례를 받아 보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문자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문해반' 교사를 맡고 있으며, 중등부의 세계사 교사로, 특활반의 연극반 교사로 일 주일 내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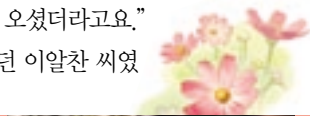
학교 졸업 후 줄곧 '노들'에만 있었다. '노들야학'이야말로 본인의 체질에 '딱'이라는 그는 대학에서 특수교육학을 공부했다. 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대뜸 어머니를 들먹인다.

"사실 저는 특수교육이 뭔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써야 하는 시기에 제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집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원서를 대신 쓰고 오셨어요. 특수교육학과에 가면 취직이 잘 된다는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다며 제 대신 지원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세상에 지체장애인만이 장애인인 줄만 알았던 이알찬 씨였

지체장애우들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소중한 이웃이다.

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특수교육에 도통 관심이 가지 않았다. 어쩌다 현장 수업을 가서 장애인을 마주하게 되면 우선 불편했다.





장애인 아학인 '노들'은 장애우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침이 흘려내리는 장애우와 한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일도 끔찍이 싫었다.

재수를 준비할까, 어쩔까 고민하는 중에 봄이 훌쩍 지나고 여름의 초입, 그때 '에바다 사건'이 터졌다. 청각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벌어진 재단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 원생 인권 유린 등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져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학교에는 사건에 관한 대자보가 붙고 관련 비디오가 상영되고 집회가 시작됐다. 한두 번 이러저런 모임에 참여하다보니 그동안 장애우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몰랐던가 새삼 뼈저리게 느껴졌다.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진로에 가닥을 잡은 시기였다. 그때부터 학과 공부에 취미도 붙이게 됐고 자원봉사를 나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게도 됐다.

군대를 다녀오고부터 본격적인 실습 단계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일이고, 특수교육을 배우려면 장애우 속으로 뛰어들어가 함께 호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때 알게 된 곳이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와 집회에 언제나 맨 앞줄에 서 있는 학교,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장애인 학교,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마음에 들었다.

이알찬 씨 마음속에는 '일상에서 배우자'라는 문구 하나가 자리잡고 있

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상근업무를 자원했다. 아침 10시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퇴근, 그리고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광진구에 위치한 정립회관에서 야간학습을 진행한다.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가족들에 의해 철저히 유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배움의 기회는 멀기만 하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우의 수는 어림잡아 450만 명. 이들 중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초등학교만을 다닌 장애인이 60%나 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셈이다.

“글자를 모르는 장애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장애우 혼자 어느 곳을 갈 경우 글자를 모르니 집을 나서기가 두려울 수밖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숫자 계산을 배운 적이 없기에 뭘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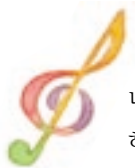
글자를 깨우치는 과정을 배우는 '문해반'의 현재 인원은 5명. 40대 노처녀이며, 히스테리 대마왕이라 불리는 이영애 씨는 5년째 이곳에서 한글을 익히고 있는 중이다.

둘 무렵 경기를 앓다 열병으로 인해 장애우가 된 이영애 씨는 꼼짝없이 누워지내야 하는 지체 장애우다. 손발이 모두 비비꼬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고개를 돌리는 일도 자유롭지 않다. 누군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데리고 가고 데리고 와야 한다.

5년 전 광진구 주간보호센터에 나오면서 한 건물에 있는 '노들'을 알게 됐다. 호기심 많고 명랑한 이영애 씨는 처음 '노들'에 오면 날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가 집 밖으로 나와서 야학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저를 아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와서





쳐다보다가 내 몸을 만지는데 그게 정말 싫었어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하마터면 배움의 기회마저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노들’에 도착한 순간 귀로만 들던 소리들이 글자를 이룬다는 신기함에 5년을 한결같이 학교에 나오는 것이다.

“자꾸 까먹어서 정말 속상해요. 기억이 안 날 때가 제일 속상해요. 한글 정말 너무 어려워요.”

5년의 세월 동안 웬만한 한글을 다 익혔지만 빨리 지나가는 글자는 아직도 어렵기만 하다. 그래도 길거리를 나서면 우선 신이 난다. 간판에 있는 글자들을 읽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조용필 씨 콘서트는 어땠냐는 질문에 얼굴색이 금세 환하게 달라진다.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날 집에 가니 목이 다 쉬었어요. 정말 태어나서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콘서트였어요.”

‘조용필 오픈’를 너무 불러 목이 쉬었다는 이영애 씨는 ‘노들’에 오기 전까지는 매일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라디오만을 유일한 벗으로 삼으며 살았다. 그래서일까, 이영애 씨의 특기는 노래 가사 맞추기. 40 평생을 라디오와 함께했으니 모르는 노래가 없다. ‘노들’ 사람들은 생각나지 않는 노래 가사가 있으면 언제나 이영애 씨에게 먼저 달려간다. 그러면 아무런 막힘도 없이 노래 가사들이 줄줄이 흘러나온다.

영애 씨의 꿈은 문해반을 이수한 다음 중등부 고등부로 옮겨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합격하는 일이다. 그리고 장애우를 돕는 활동가가 되고 싶은 게 최종적인 꿈이다.

이영애 씨와 이알찬 씨는 서로 “알찬아”,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노들’에서는 모두 형, 누나 아니면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가족 같은 관계인지, 평등한 관계인지가 한눈에 보인다.

이들 형, 누나, 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뒤풀이를 빠뜨리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입에 술도 넣어주고 안주도 넣어준다. 그리고 남들처럼



노들야학의 장애우들은 삶에 열정이 대단한 자립적인 분들이 많다.

럼 똑같이 돈 문제, 연애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한다.

“여기 노들야학에 오는 분들만 해도 굉장히 자립적인 분들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도 대단한 분들이지요. 누구의 삶이든 더 낫고 못하고는 없다고 봐요. 돈이 없어서 불편한 일이나, 몸이 불편한 일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사회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 더불어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장애우나 비장애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알찬 씨가 한 달에 받는 활동비는 60만 원 내외.

“한 달 살아갈 만합니다. 아직은 누님 집에 얹혀살고 있으니 괜찮고, 만



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돈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에 맞춰 생활의 규모를 꾸리겠다는 이알찬 씨는 돈이라는 게 교묘하게 사람을 가지고 노는 세상이 싫기만 하다.

“누구나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이 시키는 일에 묶여 사는 게 대부분의 삶이지요. 세상이 이미 정해 놓은 길, 명문대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멋진 자동차를 갖는 일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해맑게 웃지는 못해도 등 떠밀려 살지는 말자는 거죠.”

스물일곱 청년의 뜨거운 피와 날선 자의식이 푸르게 빛난다. 인간 존엄성과 평등을 위해 더불어 함께 희망 일구기에 여념이 없는 이알찬 씨의 앞날이 ‘노들’이라는 이름만큼이나 풍요로웠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

글 | 성기애(여성시대 작가), 사진 | 한향란





기업은행 미아동지점 고객 - (주)세화피앤씨 이훈구 대표
당신의 마지막 샴푸를 위하여

「 」 년 가을, 당시 세화제약 대표였던 이훈구 사장은 차 안에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 「 」가 향하던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의 차에는 오랫동안 준비한 ‘한국우수약품관리기준’(KGMP ;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승인신청 서류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 당시 제약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KGMP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승인 준비를 위해 거의 10년간 엄청난 시설투자를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이미 포화상태였고,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사업성이 불투명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이걸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약업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회사가 있는 경기도 화성으로 차를 돌렸다.

40여 년 전 서광제약으로 출발했던 세화제약은 선친의 뒤를 이어 이훈구 대표가 취임했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매출액의 65%는 제약업이, 35%는 염모제 사업이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 제약업을 접겠다는 것은 거의 회사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고, 그 다음날 바로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염모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 대표는 연구소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을 구입해 직접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기존의 자사 제품이었던 ‘흑진주’와 ‘보미젠’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1년 후에 신제품 ‘세브스피드’를 출시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세화피앤씨 이훈구 대표(오른쪽)와 기업은행 최은식 지행장.

맞게 염색시간은 짧고, 기능은 강화시킨 제품을 만들었던 게 유효했어요. 7분 만에 염색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발소와 미용실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미국과 홍콩 수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97년, 우리나라에 모발 컬러링 바람이 불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던 (주)세화피앤씨의 매출액은 점점 늘기 시작했고, 5분 만에 염색이 가능한 ‘하이스피드’ 등 꾸준한 신제품 개발로 전국 미용업소의 80% 이상을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실천으로 보여준 이훈구 사장의 과감한

(주)세화피앤씨의 제품은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결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때 즈음, 언젠가는 국내에서 보다는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욕심은 해외시장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터키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갔다가 그쪽 사람들을 봤더니 남자들은 모두 검은 머리인데 여성들 머리색은 모두 금발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모두 염색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염색을 하는데도 모두들 머릿결이 좋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이유를 재래시장에 갔다가 알게 됐죠. 바로 ‘헤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좌판에 가득 쌓아놓고 파는 헤나 가루를 물에 개어 바르고 4시간 정도 있으면 머릿결에 윤기가 난다는 통역사의 말을 들으며, ‘아, 무엇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는 가지고 들어온 헤나를 회사 연구소에 성분을 분석하게 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헤나 안에 있는 ‘로소니아’라는 성분이 머릿결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을 발견

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 나와 있는 헤나 추출물의 경우 로소니아의 함량이 0.02%로 미미해 제대로 효과를 내기 힘들었다. 우리가 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접 추출방법을 연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외국의 타제품보다 12배 이상인 0.24%의 고농도 로소니아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주)세화피앤씨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헤나라는 나무의 잎에서 추출된 로소니아는 모발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손상된 모발을 치유하고 윤기 있게 가꾸어줘요. 또 항균살균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피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드름균과 무좀균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샘플만 써 보고도 효과가 있다고 바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낙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로소니아 성분을 함유해서 출시한 ‘리체나’는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의 홍보 전략도 간단하다. 첫날 바이어들에게 샘플을 나눠주고 ‘오늘밤 꼭 이 샴푸로 머리를 감아보라’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관심을 보이며 물려든다는 것.

이런 리체나의 제품은 지난해 9월 출시 후, 한 홈쇼핑에 소개되면서 벌써 두터운 마니아층을 이끌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고객을 만나기 위해 오는 11월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염모제 공장(충북 진천)의 준공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의 공장을 짓는 데 기업은행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회사관련 시설투자 때, 이 대표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는 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지금도 든든한 친구 그 이상의 정(情)을 나누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은행의 최은식 지행장이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



기업은행 미아동지점 직원들과 함께한 세화피앤씨 이훈구 대표.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엇이든 관심이 중요하다고 믿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제 결정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모제 사업을 선택한 것, 기업은행을 선택한 것, 또 해나를 선택한 것 참 잘한 결정이었죠!”

해나 추출물을 함유한 ‘리체나’를 앞세워 올해 수출 100만 달러

돌파를 목적으로 전세계를 누비고 있는 (주)세화피앤씨.

전세계인들의 ‘건강한 머릿결’을 위해 마지막 ‘삼푸’로 인정받겠다는 이훈구 대표와 직원들의 집념에 찬 당당함은 그들이 꿈꾸는 모발만큼이나 싱싱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

글 | 최경숙(자유기고가), 사진 | 주병수

||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 이훈구 대표의 **성공** **노** **하** **우**

1. **정직이 최우선이다** 직원들에게나 고객을 대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정직이다. 투명경영, 양질의 제품이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직함에서 비롯된 신뢰 때문이다.
2. **똑같으면 안 된다** 무엇이든 모방해서 똑같은 제품은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하고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다.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제품만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3.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회사 내에서는 직급을 떠나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리더십이 나오고, 팀워크가 나올 수 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계신 곳이 기업은행입니다

- 모바일뱅킹**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은행거래
- 인터넷뱅킹** 고객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은행거래
- 텔레뱅킹** 고객이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은행거래
- 기업인터넷뱅킹** 자금관리, B2B전자결제 등 기업고객 전용 맞춤형 은행거래

● 전자금융이 좋은 점

- **하나**,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어 편리합니다.
- **둘**,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 **셋**, 3중 보안체제로 안전합니다.

* 이제 각종공과금도 인터넷으로 납부하세요



생활 로봇의 시대가 왔다!

똑똑한 청소로봇 - 아이클레보Q (주)유진로보틱스



대한민국 대표 청소로봇 아이클레보는 만족할 만한 청소기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생활로봇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유진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는 똑똑한 기능과 저소음으로 유럽에서도 그 실력과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1988년 설립된 (주)유진로보틱스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 분야의 조립과 테스트 설비, 자동화 설비 등 산업자동화를 위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해 온 로봇 전문회사입니다.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2004년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가정용 다기능 서비스 로봇 '아이로비'를 출시했으며, (주)유진로보틱스의 기술력은 업계 선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똑똑한 청소로봇'이라는 의미의 아이클레보는 유럽품질 인증마크인 GE마크와 우수산업디자인 GD마크를 획득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업그레이드 출시된 '아이클레보Q'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으로 2시간 충전으로 2시간 3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모드로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아이클레보Q'는 몸체에 7개의 적외선 센서가 장착되어 주변 벽이나 가구 등의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에 감지하여 장애물을 피해가며 전면부가 실리곤 범퍼센서로 되어 있어 가구에 흠집을 낼 염려도 없습니다. 또한 전면의 메인 브러시가 회전하며 쓸어준 뒤 진공흡입구로 다시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방식이라 더욱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여기에 은나노 항균필터와 정전필터 사용으로 세균억제와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었으며, 청소 진행상태를 알려주는 음성안내기능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말 그대로 정말 똑똑한 청소로봇입니다.

- (주)유진로보틱스 기업은행 광명지점 거래고객
- 문의 02-864-3860 www.iclebo.com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왜?]

남자와 중년

아빠의 자리와 남편의 자리를 존중해주세요
중년(中年)이 아니라 고통스런 중년(重年)입니다

여자는 모르고,
남자도 모른다
남자의 속마음을 공부하는
〈남자는 왜?〉
지난 10월 20일 목요일에
는 '남자와 중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러스트 | 성영란

「 년이 된다는 것은 몸으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중 힘겨운 듯합니다. 이 시대 중년 남성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
 」 지 무엇이 필요한지 여성시대 가족들과 영산대학교 김용석
 교수, 여성학자 오숙희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들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양희은 남자와 중년, 대체 중년이 언제일까요?

오숙희 중년은 보통 40~50대를 말하는데, 그건 평균 수명이 60세 이전일 때부터 한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니 중년의 나이도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송승환 저도 사실은 아직 중년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중년도 이제는 40대부터 60대 초반까지를 1기, 2기, 3기로 나누어야 할 듯합니다. 노년은 유엔에서도 말하듯이 65세 이상이니라 그 전까지는 중년이지요. 중년은 신체적으로 먼저 옵니다. 노안이 되니 돋보기가 필요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던 이쑤시개도 사용하게 되고, 주름이 많아지고, 기억력이 감퇴하죠.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변화는 본인은 잘 알지 만 남에게는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지요.

송승환 어? 저도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쑤시개를 사용한 지는 몇 해 되었고요. 하지만 제 감정은 중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양희은 감정적 나이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중년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숙희 중년의 감정은 분노가 대표적입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사추기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외로움을 타지요. '이거 누구 먹으라고 해 놓은 거야? 반찬이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왔는데 왜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야?' 하는 식이지요.

김용석 보이지 않아도 남성에게 갱년기가 있습니다. 생체리듬이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가 중년이죠. 이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송승환 일터에서도 중년이면 뭔가가 다르겠죠?

김용석 그럼요. 그래서 회식할 때 선배인 중년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랫사람들도 선배가 사추기라는 걸 이해하고 챙겨주고 배려해야죠.

오숙희 직장에서 40대는 불안합니다. 부장이면 이사로 올라가거나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분기점이 될지도 모르니 신경이 곤두서 있지요. 그래서 조금 좋으면 천국이 되고 조금 나쁘면 지옥을 느껴요. 스스로를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존재라고 느껴요.

송승환 저도 중년을 느낀 적이 있어요. 드라마 할 때 남자 후배들이 '형' 이라고 하고 여자 후배들이 '오빠'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신인 배우가 오더니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그리고 배역이 들어오는 데 '아, 큰 아들 역이구나' 하고 보면 '아버지' 역이에요. 주변에서 나를 중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김용석 중년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낀 세대입니다. 자식은 사춘기



고, 노년의 부모님은 치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년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중년은 그 두 세대를 다 끌어안고 해결해야 하는데, 신체적으로는 따라 주지 못하니 힘겹죠.

오숙희 얼마 전에 기러기 아빠가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버려서 충격을 주었는데, 남자의 정체성, 중년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가 너무 논의하지 않았어요. 일벌레로 돌아가기만 하고, 내면의 어려움을 꺼내놓지 못하게 돌아온 경향이 있습니다.

송승환 이제부터는 즐길 나이면 좋은데, 그러나 남성시대 가족들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를 보아도 즐기는 세대라는 분은 없네요.

김용석 솔직히 속을 들여다보면, 중년을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다. 한국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데, 중년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 한창 크죠, 직장은 위기에 있죠. 돈이 많이 있어도 모자라는 판이지요.

양희은 돈 나갈 곳은 많고 일자리는 위기고!

오숙희 돈으로 중년이 든든해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 초라해지고 힘들어요. 물 한 모금 마시면 갈딱고개를 잘 넘어가듯이, 인생의 갈딱고개인 중년에서 자식과 가족이 사랑을 리필해주어야 합니다.

양희은 여성시대에 온 편지를 보면서 느끼는 데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리를 듣는 분은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중년의 성공은 바로 그런 거죠.

송승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중년이 비참하고 위기의식만 있는 시기인가 싶어지기도 한데, 긍정적인 면도 많은 시기지요?

김용석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르익는 인생도 청년에서는 구할 수 없어요. 중년이 되어야 인생도 무르익으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 철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님이 40을 불혹이라고 하고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쉽게 혹은 하지 않는 시기와 하늘의 뜻을 아는 시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다시 찾고 일 중심에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가야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경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청년시기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중년입니다. 그게 중년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지요.

오숙희 성공·출세·실패·명예 이런 것들의 개념도 재정립하게 되는 시기가 중년이에요. 장안 소문도 사흘이면 그만이고, 부자도 다섯 끼 먹는 거 아니라고들 하시잖아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내 주변에서 정을 나누고, 하루하루 따뜻하게 정을 나누면서 세상이 살 만한 곳이라고 느끼며 살면 그게 성공이죠.

김용석 중년은 멋이 생기고 멋이 풍기는 나이입니다. 색깔에 대한 감각도 중년이 되면 더 생겨요. 생명을 즐길 줄 알게 되니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은 없어질지 몰라도 멋은 생깁니다.

오숙희 로맨스 그레이라는 말도 있죠. 중년은 그 나이에만 낼 수 있는 멋이 있어요. 세상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흐르다보니, 젊음이 없으면 다 끝난 것 같기도 하지만, 중년은 나름의 브랜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희은 그럼요. 뜨는 태양보다 지는 황혼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오숙희 남자라는 사실을 잊고,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간의 경쟁에서는 남을 늘 의식했는데, 이제는 내 문제,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되는 중년이면 좋겠습니다.

송승환 중년에는, 인생을 관조하는 지혜가 있는 시기지만, 현실에서는 가족부양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 자를 서서 중년이라고도 하시지요. 그래도 우리는 남자이기에 '멋있게 나이 들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자로, 게시판으로 의견을 주신 전국의 남성시대 가족들, 감사합니다.





여성 시대 가족들의 의견



● **김대린** 님 아내를 위해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시간도 내야 하고, 그럼 언제 남자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가족들이여! 남편과 아버지에게도 시간 좀 주시오.

● **이현이** 님 30대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주위를 많이 봅니다. 앞서가는 친구, 잘 나가는 선배, 후배... 그러다보니 세상 불평등에 원망과 불평만 늘고 있습니다.

● **조구형** 님 이제는 들어오지 말래도 해 떨어지면 집으로 먼저 들어가고 싶어지는 나이입니다. 중년이란 단어에서 묻어나는 중압감만큼이나 버거워지는 가장의 책임. 폭 설 수 있는 집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가정도 잘 건사할 거 아닙니까.

● **서종원** 님 뒷사람은 떠받들고 아랫사람은 이끌어가는 가장 불쌍한 세대, 중년! 우리 모두 다함께 힘내라고 박수쳐 줍시다.

● **강진주** 님 한국에서 중년으로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특히 저같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IMF를 겪으며 직장마저 나와야 했고, 그렇다고 뽕족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중년이란 단어도 사치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빠지고 등허리가 휘는 게 이 시대의 중년이라면, 전 그 중년 포기할 것이라요. 하지만 건너야만 할 강이기에 전 비록 물을 먹었지만 끝까지 건너고야말 것 입니다.

● **박순애** 님 우리 아내들이 아빠의 자리와 남편의 자리를 먼저 존중해야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중년 남자들을 위태위태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중년 남성분들 파이팅입니다.

● **정재형** 님 나이에 무게가 느껴지고 책임을 져야 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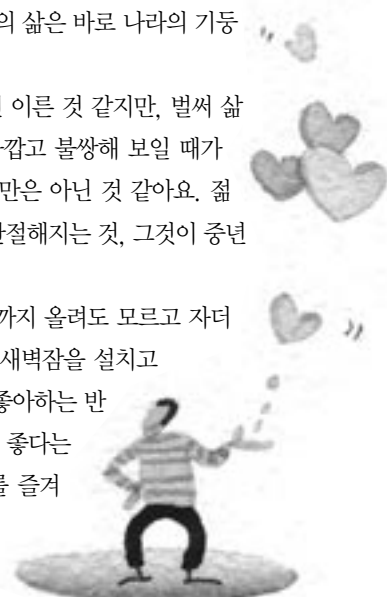
이 중년. 세상나이 4학년 4반인데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이. 배려를 받기보다는 먼저 배려 해야 할 중년.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할 중년. 내 몸은 내가 잘 관리해야 할 나이 중년. 삶에 보람도 있는 지금 나의 바른 행동은 뒷세대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삶은 바로 나라의 기둥입니다.

● **장미숙** 님 아직은 중년이라고 표현하긴 이른 것 같지만, 벌써 삶에, 인생에 지쳐 코 골며 잠든 남편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년이 된다는 것, 그리 헛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을 땐 가지지 못한 부부간의 애뜻함이 더 간절해지는 것, 그것이 중년인 것 같아요.

● **한영신** 님 30대엔 텔레비전 소리를 끝까지 올려도 모르고 자더니 40이 넘어서는 골치 아픈 일이 많으며 새벽잠을 설치고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는 남편. 30대엔 좋아하는 반찬을 밥상에 올렸는데 40이 넘어서는 몸에 좋다는 것으로만 식탁을 채우고 30대엔 쇼 프로를 즐겨 보더니 40대엔 건강프로만 즐겨봅니다.

● **하효연** 님 중년 남성의 몸체는, 중고 자동차와 같더군요. 처음 구입했을 때는 20~30대의 젊음처럼 뽕뽕 잘 달리고 성능이 아주 좋았는데, 이제는 어딘지 모르게 저의 남편도 닳고 낡아서 수리할 부분이 한두 군데씩 생겨나더군요. 제일 염려되는 것이 남편의 건강이더라고요. 저는 새벽마다 흙 묻은 당근을 깨끗이 씻어서 믹서에 직접 갈아, 남편이 신선하게 마시도록 해주고 있죠.

● **최종희** 님 중년이라고 생각하니 역수로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의 남편도 중년입니다. 남편이 중년이면 저 역시 중년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상 말합니다. 나도 이제 사위도 봐야 하고 며느리도 봐야 하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넘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한숨만 깊어가는 중년의 남편을 보노라면 저 역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



중년남자는 왜 술을 마시는가

「 인 생을 4계(四季), 즉 봄·여름·가을·겨울
로 나누는 것은 동서가 똑같다. 말하자면 어
「 린시절·사춘기·중년·말년으로 나누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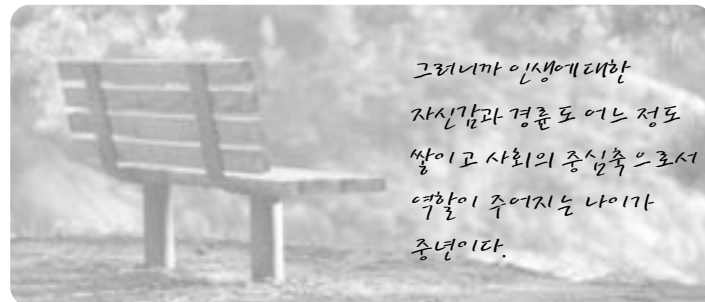
는 것이 상식이다. 예일 대학의 사회학자 대니얼 레빈슨의 《인생의 계절들》에 따르면 여기에서 중년은 보통 2기로 나누는데, 그 하나가 20세부터 약 40세까지 남자가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을 이루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말하며, 중년 2기는 보통 40세부터 60세까지로 본다. 즉 가정생활도 사회 활동도 안정기에 들어간 시기로 보는 것.

동서 고전도 인생 중년에 대하여 말한 것들이 많다. 탈무드에 의하면 50세는 인생에 대하여 충고를 줄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 공자는 40세를 모든 일에 대하여 생각의 흔들림이 없는 '불혹(不惑)'의 나이로 보고 50세를 하늘이 준 운명의 뜻을 이해하는 '지천명(知天命)', 60을 무엇을 들어도 이상하거나 서운하게 듣지 않는 '이순(耳順)'으로 보았다. 이는 물론 아무나 따라서 할 수 없는 성인 공자의 이야기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인생에 대한 견해가 어느 정도 여물어지는 나이를 중년으로 보는 점에서는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경륜도 어느 정도 쌓이고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이 주어지는 나이가 중년이다. 이런 중년의 남자들이 더러 힘들어하고 고뇌에 빠지고 허탈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더러 술집에서 주먹질을 하고 어느 국회의원처럼 술집 마담에게 욕지거리와 폭언을 내뱉는 중년 신사들... 아니면 아침 출근을 하다가 차 속에서 과로사하고, 아니

면 6개월간 아내 없는 단칸방에서 살며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 죽어간 남편들... 거기에는 직장 잃고 아내는 가출하고 홀로 자살의 길을 택한 중년도 많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한국의 중년은 누구나 한뼘쯤 허탈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그것은 우리의 해묵은 가부장 의식으로, 열심히 가정 이루고 자식 키워놓았는데, 중년이 되고 보니 문득 아내도 자식도 강아지까지 하나도 내 편인 사람은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고 아내가 바라는 것만큼 돈을 충실히 벌어들인 것도 아니고, 정력이 좋아 밤마다 멋진 섹스 파트너가 되어 준 것도 아니고보니, 어디 이렇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경륜도 어느 정도
쌓이고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이 주어지는 나이가
중년이다.

하고 내세우고 불만을 털어놓을 데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력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가서 뱀을 먹거나 코브라의 피를 빨거나 다른 정력제를 탐내는 우리 중년들이 많다. 옛날 '몬도가네'에나 나오는 끔찍한 장면들이 더러 해외 토픽으로 나올 때 우리는 놀란다. 이렇게 우리 중년이 무엇이든 정력제를 좋아하는 데는 나름대로 말 못할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노동 시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많다는 점이다. 둘째 술과 알코올 섭취량이 러시아 다음으로 높다는 점. 이 두 요소는 한국 남성의 성적 능력을 저하시킨다. 여성은 보통 35세 정도부터 성적 꽤

중년을 인생의
 4계로 보면 가을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며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인생에 대한 경륜이
 열매나 낱알이 되어 쌓이고
 더러 사람들에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며
 하늘을 보고
 노후를 생각해야 할
 나이다.

락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바로
 이 중년기의 절정에서 남성에게는 책
 임과 업무량도 가장 많고 술을 가장 많
 이 먹는 과로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
 다보니 젊었을 때 그토록 강하던 정력
 이 제대로 발휘될 리 없다. 그동안 섭
 취한 영양과 정력을 일과 술을 위해 다
 태우다보니 기타 다른 일에 쓸 동력의
 절대 결핍이 올 위험성이 있다. 이렇
 때 아내에게서, “당신, 보약 좀 먹어야
 할까봐”라든지, “당신, 몸 너무 약해
 진 거 아냐?” 따위의 소름 끼치게 자
 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할 때 중
 년의 눈에는 무슨 정력제든 먹고, 비
 아그라를 찾아야 하는 조급함이 찾아
 들 것이다. 이제 토요일도 쉬는 데가
 많고 여가도 생겼으니,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부부끼리 휴식도 즐겼
 으면 하련만, 놀러 나가도 그 또한 피
 로가 겹치고 가장에게는 또 다른 짐으
 로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오늘의 중년에게 가장 서러
 운 것은 존경과 명분을 빼앗긴 가장 자
 리의 고적함이다. 이미 가부장의 영광
 은 없는데도 우리의 중년은 여전히 처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족의 웰빙을 책
 임지며, 많은 경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못난 아버지로 비난받는다. 가족사랑은 아무래
 도 아이들과 늘 함께한 어머니가 독차지하고, 갈수
 록 돈이 많이 드는 과외비나 해외 유학비 때문에 아
 버지는 늘 시달리거나 자식들 앞에서 무능력자가 된
 다. 이런 자식들 교육이 잘 되어가는 경우라도 오늘 아이들
 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항상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는 경유
 가 많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결혼을 아주 늦게 하거나 아예 할 생각을 얹으
 니 중년 아버지의 시름만 깊어진다. 옛날 환갑 나이면 자식들이 벌어들
 이 수입으로 대접받으며 호의호식할 나이에 아직도 은퇴를 걱정하고 다 큰 자
 식들 먹여 살릴 궁리를 해야 하니 이놈의 중년이 중형인지 중노동인지 알
 수가 없다.

중년을 인생의 4계로 보면 가을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며 천고마비
 의 계절이다. 인생에 대한 경륜이 열매나 낱알이 되어 쌓이고 더러 사람
 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며 하늘을 보고 노후를 생각해야 할 나이다.
 그러나 가부장제에서 현대 남녀평등, 핵가족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중년남
 성은 옛 자리도 없고 사랑도 잃은 가정 안의 외딴 섬이 된다. 노년이 되도
 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퇴직금까지 바치고 나면 다 큰 그 아이들이 언제
 나 돈 벌여 부모를 모시고 공양할 때가 올까?



그럴 가능성도 없고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 요즘 70세가
 넘은 노인들이 많이 자살을 한다는 소리가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중년이 그렇게 쓸쓸한 것만은 아니다. 동남
 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겨울 연가’나 우리 드라마
 의 매력을 현지인들은 한국인의 정과 가족애의 끈끈함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아직 일가친척과 가족의 따스함이 체온으로 남아 있다. 그
 따스함의 숲에서 우리 중년은 정자나무거나 큰 나무들이다. 우리 중년은
 그 든든한 힘으로 우리 가족·우리 사회의 체온을 일구어갈 따스함의 울
 타리를 만들 때다. ●

글 | 민용태(시인, 고려대 교수)

KTX 여승무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 “인 원 부족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임금체불에다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 꿈의 고속열차라 불리는 KTX와 함께 ‘땅 위의 스튜어디스’라는 KTX 여승무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을 참지 못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저임금·비정규직도 서러운데 휴일조차 쉬지 못하는 실정을 알리기 위해 9월 30일 서울역 등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단을 배포한 데 이어 10월 16일과 19일에는 승무사무소 앞에서 연속으로 집회를 가졌다.

2003년 12월말 여승무원 모집에는 4일 만에 80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던 인기 직종 KTX 여승무원이 왜 리본달기와 역 구내 홍보물 배포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을까. 그들이 거리로 나선 까닭이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철도 승무원 중 유일한 계약직 파견근무

무엇보다 계약직인데다가 파견근무라는 신분 불안이 가장 큰 불만의 요인. 서울 265명, 부산 108명으로 전체 여승무원 373명 모두 1년 계약직이다. 모두 철도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자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소속이다. 공사는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설명하지만 기관사·여객전무·차장·새마을호 여승무원 등 여타 승무원들이 모두 직접 고용된 반면 KTX 여승무원만이 유일한 계약 파견직이다.

이렇게 신분이 나뉘다 보니 임금수준도 낮고, 의료비 지원이나 유니폼 지급 같은 후생복지까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소속사가 철도청 시절 재단법인 홍익회의 후신인 (주)한국철도유통으로 역 구내나 객차에서 음·식료품을 판매하던 유통회사여서 열차 승무업무와 관련한 경험이 없는 탓에 승무원 운영규정·작업규정이 아예 없거나 미비하고, 승무원들을 지도하거나 관리 능력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관리 인력에 필요한 비용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이 여승무원 인건비로 충당되어 저임금구조를 낳고 있다. 현재 공사가 승무원 1인당 지급하는 돈은 248만 5,000원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돈은 평균 155만 원 정도. 소속사인 철도유통에서 세금과 관리운영비 등을 떼고 나머지 70% 정도인 174만 1,000원을 승무원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 돈도 연·월차와 휴일을 단 하루도



쓰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평균 임금은 140~150만 원 선이다.

인원이 부족해 휴일 보장도 아득

인력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스케줄 상 월 4~5회의 휴일이 있음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체근무를 강요당해 일주일에 1회 반드시 쉬어야 하는 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휴가의 경우 요일별로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 그마저도 휴무를 반납하고 대체근무를 해야 제한된 인원이나마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승무준비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될 리 만무다. 정규직 남자 팀장도 14시간 이상 보장받고 있는데 여승무원들은 12시간도 채 보장받지 못해 수면부족과 피로누적이 심하다. 참고로 항공기와 비교할 경우 여승무원의 인원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항공기는 여객 300명당 6명꼴인데 KTX열차는 여객 1,000명당 3명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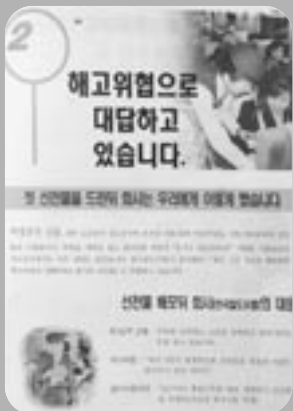
최근 여승무원들이 집회까지 이르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교육 또한 인원부족과 관련이 깊다. 회사는 교육이 있을 때마다 휴게시간 및 휴일을 반납하고 대체근무를 강요하거나 열차 승차에 3명도 적은데 2명만 근무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1월이 재계약인데 단체 행동하면 불이익” 압도

“인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주일에 하루 있는 휴일마저 포기할 수 없다”며 승무원들이 서비스 교육을 반대하자 소속사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해 교육과 2인 승무를 강행했다. 1회 운행시 3명의 승무원과 1명의 남성 차장이 있는데, 특실에 1명의 승무원이 고정 배치되어야 해 1명이 전체 일반실 업무를 떠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

더욱이 소속사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이나 리본을 다는 행위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휴일 교육’을 받게 되자 입소했다가





자진 퇴소한 여승무원 4명에게 근무지 이탈, 교육활동 저해라며 징계제사를 밝혔다. 부족한 인원에 휴일반납, 2인 승무를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과정에서는 “내년 1월이 재계약인데 단체행동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해고를 무기로 온갖 위협으로 일관했다.

노조의 민선에 지부장은 “과연 승무원이 남성이었다면 위탁교육을 시켰겠느냐. KTX를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선포하면서 계약직으로도 모자라서 위탁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다. 어서 빨리 여승무원들을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여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임금체불 문제도 드러났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단체협약상 80%임에도 70%만 지급했고, 상여금 300%는 200%만 주었고, 유급휴일과 초과근로수당 월 183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았다.

객차 내 폭언·폭행도 문제

승무원들이 일터인 객실에서 직접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취객들의 폭언과 폭행들이다. 승객들이 승무원들을 하인 부리듯 마구 반말을 내뱉는 것은 예사

고, 술 취해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최근에는 승무원이 취객에게 주먹질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에 못지않은 경우가 비록 취객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는 하지만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이 거침없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심성의껏 모든 손님들에게 웃음 띤 얼굴로 맞이하고 보내주는 것이 의무라지만 여간 분노가 치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속사와 공사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 문제에 대해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

한 승무원은 서러움이 복받치는 표정으로 지난 일 중 하나를 기억해냈다. 승무원 남자 팀장과 공안실에서 들은 이야기다.

“아, 그래요.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니 크게 떠벌리지 말자. 근무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신분이 계약직에 파견근무다 보니 나 몰라라 하는구나, 중대한 사태가 발생의 발생에도 공사나 소속사가 승무원들을 전혀 보호해줄 생각을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솟았다.

승무원들의 업무와는 별 상관없는 일을 해왔으면서도 “승무 운영에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졌다”며 업무 위탁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변하는 (주)한국철도유통과 공사의 부당한 처사에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한 자리를 주장한 KTX 여승무원들. 그들의 권리찾기의 목표는 의외로 고객의 안전 및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들이었다.

부족한 인력문제 해결, 충분한 휴식 보장, 체불임금 지불,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 등등... 이제 공사나 (주)한국철도유통이 ‘꿈의 고속열차’라고 자랑해마지 않는 첨단열차 안의 여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명성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까지 빠르게 달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꿈을 꿀 권리는 누구나 있지만 꿈을 이룰 힘은 우리 모두한테 있으니 말이다. ●

글 | 성기애(여성시대 작가), 사진 | 한향란

〈권리를 찾는 여성들〉은 생활 속에서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여성시대 가족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비릿하지만 정겨운 생선냄새

— 갈산장



「 」 년 전 우기의 어느 날, 난 비가 와서 장에 나가지 않고 쉬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울린 전화기에서 “어딘가로 떠나자!” 라는 말이 나왔고, 그렇게 무작정 떠난 곳이 안면도였다.

‘이런 낯선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좋아. 저기 바다가 보이는 저 자리에 나무가 서 있고, 그 옆으로 독이 있는 것도 그렇고, 오래 된 집 사이로 나있는 샛길도 좋고, 그 샛길을 우산도 없이 비닐을 뒤집어쓰고 가는 저 허리 굽은 아주머니의 모습을 좀 봐. 뭐가 저리도 슬픈 거지. 낮은 농성을 타고 넘어가는 트럭이 달리고 있는 저 길도 저 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길이잖아. 그렇지? 저기 넓고 포장 잘된 길에 한 사람만 걸어가는 것 좀 봐. 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기에 우리가 탄 차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는 게 좋다는 거야.’

가는 날이 장날이었는지 마침 그때가 바닷가 장날이라고 했다. 우리 일행은 잠시 차에서 내렸는데 장 초입에서부터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갑자기 일행 중 한 사람이 코를 막으며 나를 바라보고는 “얼굴에 생기 도는 것 좀 봐. 누가 장꾼 아니랄까봐” 하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바닷가 장을 놓치지 못했다. 오늘 바닷가가 인접한 장터를 찾다 매월 1일, 6일이면 장이 서는 홍성군에 있는 ‘갈산장’을 찾기로 했다. 철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대전역에서 천안역까지 가서 환승을 해 홍성으로 가면 될 것 같았다. 기차에서 내려 갈산장을

찾아가는 동안 햇빛 쏟아지는 길이면 어디든 이삭을 말리느라 나락이 펼쳐져 있었다. 시골장터를 찾아가는 길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풍경이었다.

기차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은 빠른 걸음으로 5분 거리였다. 집들은 나직나직했고, 바람에 문이 열려 덜컹거리던 집안에서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연탄을 들고 있었다. 감나무가 더없이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난 왜 감나무를 보면 평화로워질까?)

시외버스가 첫 번째로 정차한 곳은 갈산읍. 가을 국화꽃이 작고 조용한 거리의 상점마다 피어나고 있었다. 주인과 손님 모두 졸고 있을 것 같은 복다방을 지나 시장거리로 들어갔다.

갯내음이 풍겼다. 이때 머릿결도 푸석하고, 얼굴도 피곤해 보이는 한 아낙이 꽃게를 사라고 걸어가는 내 다리를 잡았다. ‘나도 장꾼이에요’ 하는 속마음에 가슴이 울컥했고, 또 웬지 모를 연민이 느껴졌다. 생선장사는 장꾼들 틈에서도 별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름이면 생선냄새가 심하게 진동해 주위 동료로부터 떨어지라는 심한 냉대를 받고,



그도 아니면 말꼬투리에 심정이 상해 싸우기도 한다. 또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도 코를 쥐고 외면을 하기도 한다.

하루는 금산장에서 만나는 생선장사 미영이 엄마가 달려드는 파리 떼를 쫓으며 향수를 달라고 했다.

“향수는 뭐하데요?”

“동창회 가려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목욕하고 가면 되잖아요.”

“오랜 시간 목욕탕에 있어도 몸에서 생선냄새가 떨어지지 않아요. 버스 타도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서는 걸... 안 서는 건 괜찮는데 이상한 눈으로 힐끔거리면 정말이지 환장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양말장사언니는

“그래서 생선장사는 홀아비나 노총각이 많아. 옆에 와서 각시가 못 잔데, 냄새난다고. 실제로 각시가 도망간 사람도 있어” 하고 말했다.

“에이~ 설마” 하고 나는 미영엄마 눈치를 살폈다.

미영이 엄마는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가 팔고 있는 갈치가 갑자기 위대해 보였다. 왜냐하면 생선 파는 미영이 아빠 두고 도망

도 안 가고 오히려 같이 벌겠다고 나왔으니 그 각시의 마음은 용왕의 딸이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향수를 사며 내게 “생선냄새 안 나서 좋겠다”고 했다. 나는 괜히 미안해졌다. 그녀는 가을에도 파리채를 들고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장사를 한다.

비릿한 냄새가 흐르고 있었지만 누구도 갈산장 생선장사는 파리채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 나는

마음이 편했다. 장바닥도 갯벌에서 따온 물로 흥건했지만 아무도 코를 막지 않았다. 계장을 담는다고 참계를 사러온 사람의 흥정이 시작되고 나는 장꾼이 아닌 채 옆에 앉아 구경했다. 오늘 아침 잡아 올렸다는 은갈치도 팔려나갔다.

도시에서 온 사람은 새우와 민물 게를 샀는데 짐이 많아 구경하던 내가 들어다 주겠다고 했더니 주위의 장꾼들이 착한 아줌마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해산물이 절반 이상이고 공산품은 구석으로 밀려나 자리만 지키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중국집 명성각 앞은 장날 옷놀이터가 되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오가는 사람을 불러들였다. 나는 할일 없는 사람이 되어 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옷놀이를 구경하다 시장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게를 2킬로그램 샀는데 주인아주머니가 덤으로 새우를 얹어주었다.

장날이 늘어지는 여름 한낮처럼 생기도 없는 게 젊은 사람은 보기가 귀하다. 섬 집 아기도 장구경을 왔는지 할머니의 손에 끌려 유모차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는다. 장을 빠져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 차부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 틈에 끼어 앉았다.

장꾼인 내가 장을 찾아오니 술래잡기 하듯 흥미롭고 신선했으며 조심스럽고 새로운 기운이 생겼다. 바닷가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겸허하고 인내심이 컸으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깊게 파인 주름에 숨어있는 땀을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며 “수고하셨습니다”라며 몇 번이고 감사하고 싶었다.

떠나온 도시로 돌아왔을 때 해는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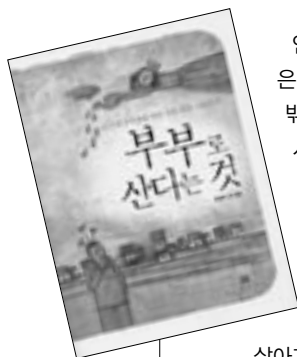
글 | 안호숙

안호숙님은 충청도 일원의 시골장을 다니며 화장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장터 사람들의 사는 풍경을 여성시대 가족에게 전해드립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유

「 어 」 느릿 차가워진 바람에 코트 깃을 단단히 세우고, 뜨거운 코코아 한 잔을 그리워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바람 「 」 에 뒤통수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던 예전의 그 희희낙락하던 모습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지금은 이 계절의 날씨처럼 모든 게 쓸쓸하기만 합니다. 몸과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줄 무언가가 꼭 필요한 요즘, 작은 행복을 찾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친구에게 건네는 칭찬 한 마디, 남편의 작은 어깨 토닥여주기, 자신을 위한 완벽한 휴식도 행복의 촉매제가 됩니다. 늘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행복입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기막히게 소중한 겁니다. 모든 사랑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인연의 관계'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인연으로 평생 해로 사는 부부도 있지만, 이혼하거나 또 함께 살아도 평생 원수지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로 산다는 것》은 우리 곁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이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통해 부부로 산다는 것의 참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책은 MBC 여성시대에 그동안 청취자들이 보낸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 부부이야기만을 모아 '이 시대 부부들을 위한 감동 리얼 스토리 50선'을 묶은 것입니다.



소중한 나만의 인연과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이 축복이어야 할 부부생활. 하지만 현실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책에 담긴 이 시대 부부들의 이야기들을 읽다보면 부부간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꿈꿔왔던 행복보단 가슴 아픈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 부부들에게 이 책에 담긴 50가지 감동 실화는 그들이 꿈꿔왔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전해줄 것입니다.

부부와의 행복을 찾았다면 이제 자신을 위한 행복의 조건들을 만나보세요.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깊이와 넓이 4막16장' 등의 저서를 통해 철학의 대중화를 선도해온 철학자 김용석 교수의 《두 글자의 철학》은 낭만·책임·비판·순수·모욕·체념 등 26개의 두 글자 단어를 소재로 인간의 삶과 윤리를 돌아보는 철학적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재발견한 철학자는 억누르기 힘든 호기심을 발동합니다. 저자는 새로운 변화를 꿈꿉니다. 사랑과 우정, 생생한 인간 관계를 위한 멋진 놀이, 진실의 조건, 희망의 동기, 깨어 있는 자들의 건강한 꿈 그리고 산들바람처럼 즐기는 우리네 삶에 대한 다양한 성찰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삶의 조건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길이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철학적 대화에도 즐겁게 참여하고, 또 그로부터 일상적 실천을 위한 신선한 자극을 받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로 인해 자극 받고, 나아가 작은 행복으로 귀결시키는 일,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이뤄봄이 어떨까요. ●



사연이 있는 사진

※ 낡은 앨범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 있는 사진과 사진에 얹힌 간단한 사연을 여성시대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어디있니?

1976년 현풍초등학교 졸업식의 모습입니다. 코를 질질 흘리며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다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몇몇 친구들 중 고인이 되어 먼 하늘나라로 먼저 간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아쁩니다.

“현풍초등학교 6학년 4반 친구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구나.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네. 우리 친구들 힘내라!”

김명수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2001년 여성시대 주부 나들이

‘2001년 여성시대 주부나들이’에 참가했던 사진입니다. 무대 위에서 한방을 썼던 네 명의 짝꿍들과 함께 ‘찰칵!’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짝꿍들은 그날 이후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모두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한바탕 웃어 버린답니다.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과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여성시대,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허정순 / 경기도 사흥시 정왕동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녔던 내 친구 영미. 어느덧 서른아홉 살이 되었을 텐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잘 살고 있는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 어렵게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했던 석관고등학교에서 찍은 추억의 사진이에요. 그동안 영미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광고도 참 많이 했었는데, 결국 못 만났습니다. “영미야! 혹시 나 보거든 꼭 연락해라잉~ 보고 싶어!”

한순남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친구야!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철부지 소녀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지금은 모두 애기 엄마가 되었지요. 목포에서, 의정부에서, 여수에서, 수원에서, 성남에서 모두 잘 살고 있는 중학교 친구들을 오랜만에 사진 속에서 만나니 너무나 반가워 여성시대에 사진을 보내봅니다. 어때요? 제 친구들 모두 꽃보다 예쁘죠?

주경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또 다른 꿈을 향하여

「 달 남은 2005년이 그
두 냥 통째로 다 지나간
」 느낌이다.

MBC-TV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45분부터 65분간 방송되던 '행복한 수다-좋은 친구'가 드디어 종영되었다. 2004년 11월쯤 꿈을 꾸기 시작하여 2005년 1월의 백두산, 2월의 네팔, 3월의 제주... 그렇게 첫발을 내디딜 때엔 정규방송 8개월여, 주말마다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값을 치를지 상상을 못했다.

일단은 여성시대 주말방송분의 녹음을 꼬박꼬박 해야만 됐다. 그리고 어떤 주는 월요일 새벽, 인천 공항에서 내려 곧바로 여성시대를 진행했어야 했다. 준비해놓은 프로

그램이 거의 없어서 그 주말에 찍어 다음주말에 방송을 했으니, 매 주말 남의 나라를 다니면서 애깃거리를 넉넉하게 찍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었다.

방송으로는 5분 남짓 나가는 소재의 촬영을 위해 7시간 넘게 꼬불꼬불한 산길을 달려갔고,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동남아시아에선 우리나라 중고차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빌려 타는 차의 대부분이 오랜 세월 써서 아주 낡은 차량들이었다. 좌석이 망가져 있어 길 위에 돌멩이 상태가 어떤지 죄 알 수 있었다. 30여 분 타면 허리가 아파왔다.

우리나라 곳곳의 묻혀 있는 아름다운 인심과 경치를 소개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다. 바깥으로 나가 남의 나라 풍물을 많이 찍어 오라고 했을 때부터 소위 고생(?)이 시작되었다. 새벽 1시 반쯤 숙소에 들어오고, 또 첫 새벽에 뛰쳐나가는 일정도 많았다. 그래도 애시청자들 얘기는 그렇게 여행을 휘이휘이 다니는 게 부럽다고,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가는 얘기의 흐름이 좋았다고 한다.

여행이 서너 번쯤 지나면서부터는 떠난다는 설렘보다는 준비물 잘 챙기기, 비상약과 우리 반찬 챙기기가 일이 되었다. 도중에 젊은 사람들이 아프고 쓰러지고... 사연도 많았다. 우리의 사연과는 상관없이 하여튼 간에 끝이 났다.

9월쯤서부터는 정말 고되다는 것을 몸이 느껴서 도중하차하고 싶었지만 공공의 매체를 통해 어찌어찌해서 그만 두노라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처지라 중년의 아줌마들을 대표한다는 심정으로 이 악물고 했다. 내가 그만 두면 '아하! 제일 나이 많은 여자가 드디어 잘렸구나' 할 테니까.

주부로서 살림을 돌보지 않은 8

개월 동안, 나와 같이 사시는 친정 엄마는 아주 아주 나이든 티가 날 정도로 갑자기 늙으셨다. 어깨통증도 심하고 무릎도 더 아프시고 말이 아니시다.

일은 변함없는 분량이 그대로인데 내가 빠지면 누군가가 내 몫을 채워야 한다. 누군가는 두 배 세 배로 힘이 든다. 세상일이 다 그렇다.

각자 선 자리에서 누군가 어떤 이유로든 제 몫을 못할 때, 옆 사람이 똥장군을 지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도 꿈을 꾸다는 일은 즐겁다. 열일곱 살짜리 나의 애견 미미는 자면서 안 보이는 눈을 계속 움직인다. 못 걷는 뒷다리는 마구 버둥댄다. 꿈속에서 무언가가 보였고, 달려가는 모양이다. 라디오 생방송을 하면서 여행을 늘 꿈꿔왔던 내게, '행복한 수다-좋은 친구'는 이를 수 없는 꿈이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달콤하고 분방한 꿈에서 깨어났다. 이제 다른 꿈을 또 꿀 것이다. ●

글 | 양희은(여성시대 진행자)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 이 번 가을 학기에는 매주 수요일, 모교에서 남편과 함께 결혼 준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시작하는 6시 전에, 함께하는 또 다른 부부와 신부님 두 분, 이렇게 여섯 사람이 함께 학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벌써 2주 전의 일입니다. 그 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혼자 저녁을 먹고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늦었다는 미안함과 반가움에 인사를 하고나니, 식사를 마친 남편이 식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커피를 타서 여러 잔을 들고 왔어요. 모두들 감사해하며 커피 잔을 드는데, 제 것만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신경하게 그냥 앉아버렸고, 다른 부부의 남편이 타오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의 충동적으로 “괜찮아요. 저는 마시고 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곧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즐겁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섭섭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제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남편. 둘만이 있을 땐 다정한 듯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금방 모든 관심을 제게서 걷어가 버리는 것만 같아요. 그럴 때면 저는 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슴 속 한쪽이 텅 빈 것 같아 아주 춥게 느껴졌어요.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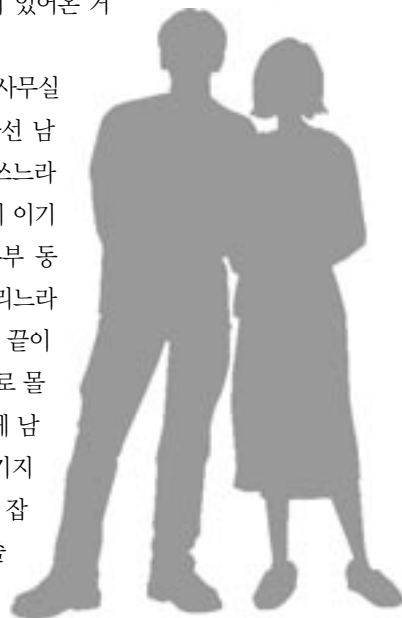


시에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도 짜증이 났습니다. 아직도 이만한 일로 섭섭해 하고 상처를 받다니….

집으로 돌아 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얼른 일어나서 커피를 타 와도 되었고, 아니면 그냥 “당신 커피, 나주면 안 돼요?” 하든지, 그도 아니면 아예 “내 것만 없으니 되게 섭섭하네” 하고 솔직히 말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해놓고는 왜 마음속엔 찬바람이 지나간 거지?

사실은 커피 한 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부부가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 그 순간부터 남편에게서 저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서류를 갖다 주러 사무실로 갔을 때 서류만 받아들고 뒤돌아선 남편, 여행가서도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 마누라가 아픈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이기적이나고 비난했던 일, 동문회에 부부 동반으로 가서도 혼자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나는 내팽겨졌던 일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점점 저는 저의 상처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남편은 저를 자신의 부록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잡기 시작하니 이 가을이 어찌나 쓸쓸한지… 이런 수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혼의 그늘' 상담? 아이고, 너나 잘해라. 이런저런 생각에 비판적으로 되어 갔습니다. 자연히 저는 남편에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되어 갑니다.

사실 남편은 스스로를 '남자 무수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의 뒤치다꺼리를 자신이 다 하기 때문이죠. 길 눈 어두워 약도 그려줘, 주말이면 온천 데려가 줘, 밥 사줘, 여행 데려가 줘, 또 여행 가면 그냥 갑니까? 모든 수속 절차와 서류 챙겨줘,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문짝 긁어 놓은 것도 다 수리 해줘, 하다못해 제가 잘 보이지 않아 그냥 지나가려다 부셔 놓은 방충망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이 수업도 제가 원해서 함께 시작했고, 연구소 일도 바쁘고 와중에 열심히 도와주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게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라기보다 남편이 워낙 잘나서, 남편이 너무나도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저를 도와 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존중할 수가 없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였습니다.

제 스스로 부족한 제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나를 남편인들 어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런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많은 작업들을 하면서, 그래도 스스로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자부해 왔는데, 여지없이 들통 나 버렸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니, 이 얼마나 속 빈 강정 같은 바람인지.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부족한 점만 발견하고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발전하고 나아진다 하더라도 잘 만족하지 못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보는 만큼 나 자신을 좋게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은 '나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줘'란 말이라고 오늘도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해야만 한다고 방송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잘 못합니다. 남편이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할 정도까지 사랑을 못 해요.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해줘!'라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되니 서로 상처주고 상처 입고 삽니다.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말이죠.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저를 더욱 기운 없게 만듭니다. 멀리 보이는 산의 색깔도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나무들 밑에는 수북이 쌓인 낙엽들이 보입니다.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저 낙엽들처럼 떨어져 나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안미경님은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성시대 이혼의 그늘 코너에서 결혼의 의미와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 도움말을 주고 계십니다.

새로움을 위한 ‘버리기’와 ‘비워두기’

「 정 리 않고 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제가 이번 가을 들어 대청소를 두 차례나 했답니다. 두 차례 모두 대청소 자체가 목적 」 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은 제 방의 도배 때문에, 또 한번은 사무실의 자리 재배치 때문에 짐들을 쌓아 내놓는 과정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된 것이었지요. 봄도 아니고 가을 끄트머리에 웬 도배고 자리 배치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이니 회사니 가는 곳마다 대대적인 정리가 있었던 것을 보면, 이번 사태는 거대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제 지저분함을 따끔히 고쳐주려는 세상의 협공이었다, 하고 말입니다. 하여간에 이번 달 들어 저를 둘러싸고 있는 두 곳의 터전에서 짐 싸기, 대청소, 짐 풀기의 과정을 거치는 대대적인 ‘환경 미화작업’이 있었습니니다.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과 싸운 여주인공, 침대 위로 멋진 큰 트렁크 가방을 ‘탁’ 던져놓고, 옷장을 ‘확’ 연 후에, 옷장 안의 옷들을 옷걸이에 걸린 채로 ‘확확’ 아무렇게나 가방 위로 던집니다. 다음 장면은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온 여주인공의 모습’ 말입니다. 방 안의 짐을 싸고 사무실의 짐을 싸면서 이러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개네들은 어떻게 옷만 딱 챙겨 나가냐? 금방 돌아올 거라서? 그래도 로션도 하나 안 챙겨간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그렇게 옷을 넣으면 다 구겨지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트렁크 가방 하나에 쑤셔 넣는다고?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야. 이렇게 현실을 왜곡해도 되는 거야?”

정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짐 앞에서 쏟아내었던 저의 비난은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제 방과 제 사무실 모습에 대한 화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쩌다 드라마의 여주인공 역을 맡았다손 치더라도, 남편과 싸우는 장면 뒤 멋지게 짐을 싸다 뿔 문을 닫고 나가는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은 절대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짐에 깔려 버둥거릴 우스꽝스런 여인 역할은 몰라도 말이지요.

실상인즉슨 그랬습니다.

1. 제 방 : 변화를 싫어하는 제 특성으로 인해 가구 배치는 8년째 그대로 입니다. 학교 때 쓰던 책들은 물론이고, 취직 시험 보러 다니면서 받은 자료들까지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의자 위에는 온갖 옷가지들이 무질서하게 쌓여있고, 모든 서랍 속에는 초등학교 때 일기장, 중학교 때 친구들과 주고받은 쪽지들까지도 처박혀 있습니다.

2. 회사 : 어쨌든 직장은 직장. 고작 3년 경력에 순수 제 짐만도 꽤 되고, 게다가 프로그램에 팔려 내려오는 각종 자료들까지 보태어 놓으니 그 양과 부피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두 터가 모두 축대밭이 된 제게는 딱 하나의 문장만이 머릿속에 남더군요.

“나는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버려야 하나?”

미련이 많고 불안이 많은 저로서는 정말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 20여 년을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한 캐런 킹스턴이란 서양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 있지요. 그녀의



이론에 따르면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 집안의 에너지를 침체시키며, 이 정제된 에너지는 주인의 육체와 정신까지 침체시킵니다. 그런데 왜 정리하지 못하는가? 그녀는 대답하지요. ‘만일’을 대비하여 물건을 버리지 못하거나 그 물건에 자신의 추억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요. 추억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만일’을 상정하는 대개의 경우는 뭔가를 버린 뒤 그것이 곧 필요해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기어이 그 물건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진짜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두 번의 짐 싸기와 짐 풀기를 겪으면서 육체적으로 고되었던 시간 너머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쌓아온 기간과 그 간에 들었던 노력, 그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정체불명의 집착, 그 모두를 부지불식간에 다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 말이지요. 조금은 비워놓아야, 빈틈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미 너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에 전에 없던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버리고, 단출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치운 지 며칠이 되었다고 벌써부터 또 쌓여가는 방안과 사무실을 보면 오늘 먹은 점심이 아직 소화가 안 된 듯 답답함까지 드네요. 멀리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위해, 또 새로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름의 자양분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버리기’, ‘비워두기’를 맘속에 담습니다. 책상 위 잡동사니를 정리했듯이 머릿속 잡동사니도 정리해보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릿속이 시원~ 해지지 않습니까? ●

글 | 김빛나(여성시대 PD)



여성시대 퀴즈를 함께하실 분들은
아래의 문제를 풀어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정답자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50-604 서울시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400호 여성시대 앞
(보내주실 때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여성시대 화요일 요요 시간에 왕애청자로 자부하는 분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풀어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1

이 행사는 여성살롱과 여성시대를 통해 가장 오래된 행사로 매년 봄, 신록이 아름다운 때에 열렸습니다. 1979년부터 열려서 올해는 27회였습니다. 주어진 글제를 가지고 수상작을 가리는 이 오래된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신춘문예 ② 신춘 편지쇼 ③ 백일장 ④ 수기공모

문화방송은 1961년에 한국 최초의 민간상업방송으로서 라디오 방송으로 출발하였지요. 문화방송국은 지금은 여의도에 있지만 그 전에는 정동에 있었고, 처음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인사동에서 문화방송이 출발하던 시절, 문화방송은 건물의 2층에서 출발하였는데, 그렇다면 1층에는 무슨 가게가 있었을까요?

- ① 분식집 ② 미용실 ③ 가구점 ④ 양복점

3

편지는 역시 손으로 써서 우표를 붙여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야지, 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홍길동 씨가, 편지를 한 장 써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여성시대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표는 얼마짜리를 붙였을까요?(통상우편의 요금을 묻고 있는 겁니다)

- ① 200원 ② 210원 ③ 220원 ④ 230원

10월호 정답자

장용구 충북 충주시 이류면 백경자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이정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박연순 인천시 계양구 직전동
박해원 경북 구미시 공단동